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모든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능의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들을 바라보며 모든 크리스천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15)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11호 2012년 11월 24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중동의 화약고, 또 터졌다!

미 언론,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배경과 전개 양상 예측

2011년 발생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반정부 시위 즉 "아랍의 봄" 이후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이 부상하고 콥트(Copt)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과 교회 방화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역과 서안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불법으로 정착한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정책을 펼치자, 수니파 무슬림들 사이에서 급진주의 이슬람 단체 하마스의 인기가 증가했고, 이 와중에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은 빠른 속도로 팔레스타인을 떠나고 있다.

결국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이슬람 극단 테러단체 하마스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하마스가 결사항전에 나서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가자지구 사상자 수가 2천명을 넘어섰고,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 폭격 배경 가운데 하나가 '2월 총선'에 있었던 만큼, 이스라엘의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까지 투입하면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거론된다.

중동 대부분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성토했고 나선 가운데 미국정책연구소(IPS)의 조르지오 카피에로(G. Cafiero)는 15일, 외교 안보분야 싱크탱크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FPIP) 홈페이지에 올린 글(Hamas in the New Middle East)에서 지난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으로 바뀐 중동 정세가 하마스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 주목을 끈다.

'아랍의 봄' 으로 바뀐 중동정세, 하마스 위상과 진로변경이 분쟁 원인

하마스는 중동에서 새롭게 등장한 지정학적 현실이 자신들에게 고립을 탈출하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적법한 대표성을 인정받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며 이웃들과의 관계를 심화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도박을 걸고 있다.

시리아에서 수니파 이슬람주의자들의 부상을 두려워하는 헤즈볼라와 달리 시리아가 보수적인 수니파 정체를 띤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라 전망은 하마스에 불안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시리아국가연합(SNC)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인 시리아 무슬림형제단은 전통적으로 하마스를 지지해왔다. 만약(시리아 집권당인) 바트당의 질서가 붕괴하고 무슬림형제단이 정권을 잡는다면(무슬림형제단의 분파 격인) 하마스는 아사드 이후 시리아와의 우호적 관계를 기대할 만한 이 유가 생긴다.

하마스는 중동 전역에서 다른 수니파 이슬람주의자와의 관계도 구



2천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가자 지구가 20일 극적 협상으로 일단 폭격이 중지됐다. 사진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시위대 모습.

축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세력은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이 이끄는 민선 정부다.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대립을 피할 수 있

는 시나이반도의 안보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해 이집트의 특정 국익에 의해 하마스와 이집트의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지만, 호스니 무바라크 축출 이후 이집트와 하마스의 관

계는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 게다가 2011년 10월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수감자 맞교환 당시 이집트 정부의 역할은 향후 하마스의 국제적 고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집트의 역할을 보여준다.

하마스에 대한 여러 국가의 증대되는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은 분명히 아랍의 봄이 시작되면서 자신들만의 어젠다(agenda)를 추구하고 있다. 하마스의 지도자들은 중동 전역의 온건하고 민주적인 이슬람 정당의 성공에 주목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당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2007년 쿠데타에도 살아남은 사건, 이스라엘-이집트 국경 봉쇄, 그리고 2008-2009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등을 거치며 여러 아랍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사라질 처지에 놓인 게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3면으로 계속)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세미나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Hear, O Israel" 생명의 말씀을 Word of Life to 자녀들에게(산 6:4-9) Our Next Generation!

일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 (9박 10일)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II-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

- **참석대상**
1) 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세미나와 성지순례 9박 10일 숙박 등록비: 1400불
- **항공료**: 별도로 개인부담
- **등록마감**: 2013년 2월 28일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재)에듀넷스트교육개발원 TEL. (02)583-9136~8 / Fax 588-0709



2면 전인건강...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기도



7면 성경적 신앙전수의 원리 (4) 김혜천 목사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투고시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16면 LA 모든 교회를 섬기는 '오병이어선교회' 이준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전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3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부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3년 1월 25일(금) 오후6시
- 3 입학 시험 : 2013년 1월 26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성 훈련 : 2013년 1월 28일(일) - 30일(수) 저녁 8시
-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시론

기다림의 계절



송상현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홀어졌던 가족이 모여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덕담을 나누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나면 한 달 정도 남은 한 해를 마감할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상인들은 Black Friday Sale 후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다시 대목을 기대하며 물건들을 매장에 전진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미디어 광고와 우체통에 가득하도록 배달되는 다양한 광고지를 보면서 어린 아이들은 들뜬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합니다. 수많은 동창회, 연말 모임에 참석하라는 광고와 함께 연락을 받으면서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창고의 한쪽 구석에 쌓아 놓았던 크리스마스 장식을 꺼내 트리와 함께 단장하는 집을 하나 둘 보게 되고 매장에서 들려오는 캐럴 송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동일하게 분주해진 마음을 붙잡아 앉히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12월이 되면 들뜬 마음으로 분주해지는 것일까? 누구를 위한 분주함인가? 세상에서 이미 소비와 향락으로 퇴색된 크리스마스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변질된 마음을 다스리며 절기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주님 탄생을 바르게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는 대강절을 지킵니다. 대강절(Advent)은 '옴',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기대하며 준비하는 성탄절 전의 4주간을 가리킵니다. 대강절(待降節)의 또 다른 명칭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대림절(待臨節), 강림절(降臨節) 등이 있습니다. 대강절은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과거적 의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총체적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첫째는 육신으로 곧 탄생하실 주님을 기다리던 이 천 년 전의 상황을 기념하고 재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삶을 경건히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둘째는 오늘 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셋째는 세상 종말에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야 할 대강절의 의미를 생각 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올해 대강절에는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1)회개와 자기반성의 시간으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긍휼을 경험해야 합니다. (2)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3)경건생활을 통한 신앙의 회복을 이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휩쓸리며 분주한 가운데 어수선하고 느슨해진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발길을 가까이 따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복된 소식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절정으로 축제의 즐거운 명절로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탄 축하의 경험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할 수 있는 사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12월은 주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의미 있는 절기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사모함과 감사함으로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인건강...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기도

크리스천센추리, 영적, 신체적 건강한 목회자의 건강관리 대안 제시

목회자들에게 가장 분주한 시기인 연말연시가 다가왔다. 먼저 사무총회나 교회제적 인선에서 한해를 마감하고 신년 목회구상으로 더욱 더 시간을 쪼개서라도 교인들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진다. 사무총회나 교인총회를 마치고, 성탄절 예배 준비로부터 송구영신 예배와 설교 준비, 수고한 교회 제직들에게 안부 인사하기 등등 그나마 시작했던 달리기, 걷기 운동은 접어야 한다.

달리는 차 안에서 식사를 해야 하고, 연말연시로 인해 잦은 모임에 나가 예배를 인도하며 캐더링이나 야채가 많지 않은 기름진 음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한다. 여기저기서 오라는 초청은 많고, 냉정하게 사역을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가 요구되기에 기진맥진하게 된다. 그러다가 지친 육신과 영성의 재충전하기 위해서 휴가라도 신청하면 교인들의 눈

살이 찌뿌러진다. 의사에게 찾아가 건강에 대해 물어 볼 수도 없고 친구들과 만나 편하게 고민이나 서로의 아픔이나 기쁨을 나눌 수도 없다보니 목회자들에게 찾아오는 만성적 질병은 당연하다. 비만, 관절염, 좌절(우울증), 심장 관련 질병들, 고혈압, 당뇨 그리고 스트레스는 언젠가부터 목회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크리스천센추리(The Christian Century)는 최근 듀크 대학에서 지원받은 기금으로 '목회자 건강 연구소(The Clergy Health Initiative, CHI)'가 연구한 연합감리교회 소속 노스캐롤라이나 연회 목회자들의 건강을 진단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보도했다(Fit for Ministry: Addressing the crisis in clergy health).

먼저 건강과 관련된 목회자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자.

1. 목회자의 삶은 규칙적이지 못하다.

일반인들처럼 9-5에 교회에 나가 사역을 하다가 밤중이라도 예기치 않은 성도들의 부름을 받아야 하므로 늘 상 응급실 당치의 같이 비상대기 상태인 셈이다.

2. 식사조절이 어렵다.

심방을 자주 다니면서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마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칼로리 높은 음식을 자주 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커피와 음료도 거절하기 어렵다.

3.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6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낮에 일정시간의 휴식시간을 갖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더욱더 어려운 현실이다.

4. 늘 심한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매일 예배와 주일, 예배의 설교준비도 스트레스이며, 부교역자, 당회원, 성도들과의 인간관계, 교회 재정과 건축, 그리고 인근 교회와의 비교는 더할 나위없는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목회자 가정의 재정과 자녀교육도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이다.

5. 스트레스를 풀어줄 사람이 없다.

목회자는 외롭다. 스트레스가 쌓여도 성도들과 이를 나누기 쉽지 않다. 기도제목으로 내놓기도 어렵다. 마치 영력이 부족한 목회자로 비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CHI 수석 연구원, 프로스홀드-벨은 UMC 소속 목회자들에게는 만성적인 질환과 더불어 식생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



본인은 살을 빼고 싶어도, 아침에만 식사를 3번씩이나 해야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처럼 사역에만 매달리다보니, 목회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회중의 건강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하려면, 지체 없이 후자를 택한다. 하나님께 부름 받고 헌신한 성직자로서 사역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 YMCA, 피트니스 센터에서 땀을 흘리면서 건강을 챙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과는 멀다고 여긴다. 사역이 먼저이지, 자신의 건강은 다음이라는 긴장이 항상 목회자들에게는 주어져 있다.

결국 목회자가 주로 호소하는 질환은 다음과 같다:

1. 위장과 소화기 질환: 속쓰림, 복통 등의 위궤양을 호소하기도 하고 더부룩함, 이물질느낌, 소화불량

목회일정처럼 시간 정해 운동으로 몸 관리 주치의 갖고 정기검진·감성적 대화 도움

제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목회자들 중 40%가 비만으로, 이는 동 지역 일반인들에 비해 11%,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14%나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비만이 성인병의 시작을 알리는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다.

프로스홀드-벨은 그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한다.

먼저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체적 활동 영역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즉 차를 몰고 교인들이 요구하는 것들, 심방, 병원 방문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교회로 돌아와서 설교를 준비하다보니 자신들의 건강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가 없다.

두 번째로, 목회자들은 신체적 건강 문제마저도 영적으로 접근한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우선순위로, 교회 사역에 분주하고

교인들이 건강하기만 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도 괜찮다고 여긴다.

그러나 교회 사역 스케줄은 목회자들에게 더 이상 영적 우선순위가 건강을 지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목회자들의 사역은 일반인들처럼 9-5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항상 스케줄이 바뀌고, 식사는 사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작 목회자

들의 신경증상이 자주 있으며,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과민성대장염도 흔히 있는 질환이다.

2. 심장 및 혈관계 질환: 가슴통증이나 조이는 느낌 등의 협심증이 자주 발생하며 부정맥이나 고혈압도 자주 동반되고, 드물게는 지속되는 가슴통증을 일으키는 심근경색증으로 생명을 잃기도 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 병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초읽기... 최악의 시나리오

미 언론,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배경과 전개 양상 예측

(1면에서 계속)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공군이 지난해 정전 협상에 나섰던 하마스의 군사지도자 아흐마드 알자바리를 암살한 이후 가자지구에서 긴장이 매일 고조되면서 더 큰 충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지속되는 가자지구 공격은 내년 1월 선거를 앞둔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가 이끄는 우익 진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네타냐후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관심과 이스라엘의 장기적 안보가 항상 일치했던 건 아니다. 한편으로는 하마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늘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군대를 거둘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려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의 폭격은 중동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상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터키 역시 양측의 평화협상 중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스라엘-시리아 평화협상을 적극 중재해 중동평화의 확산 효과를 이루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찬 구상이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맹폭을 비난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



고 있는 것. 이란의 강경 단체인 전투성직자사회(Combatant Clergy Society)는 29일부터 1주일간 "시오니즘 정권(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자원자" 모집에 들어갔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모집 대상은 전투병부터 재정 지원 및 정치선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불과 하루 만에 지원자가 1천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8일 전 세계 이슬람교도들에게 포

고령을 발표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모두 "순교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란 정부는 의약품과 식량 등 긴급물자를 가자지구 투입하기 위해 1차 수송기를 이집트에 보낸 데 이어, 2차 수송기도 곧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가자지구 봉

쇄를 강화하고 있다. 구호물자 투입을 둘러싸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폭격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팔레스타인 구하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란 곳곳에서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연일 밤,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9일자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맹폭 배경 가운데 하나를 "적들에게 이스라엘의 이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6년 레바논 전쟁의 패배로 자신이 '종이호랑이'로 인식되는 분위기를 가자지구에 막대한 폭탄을 투하해 일신하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관 '충격과 공포'(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 작전) 작전을 통해 적들에게는 공포심을,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안도감을 안겨주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스라엘 타도를 목표로, 하마스의 전략 중 중동권 강경 이슬람 정권들의 연대로, 이번 이스라엘-가자 지구 전면전이 진행되는다면 또 다시 중동권에는 전쟁의 소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게 된다.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정권은 따라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그 귀추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대답을 가지고 있다.

새소망 칼럼

바늘과 실의 역할을 하는 교인이 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바늘과 실의 역할은 한마디로 "화합과 치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바늘과 실처럼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꿰매주고 찢어지고 갈라진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화합하고 봉합하여 화해를 이루도록 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인간(神人間)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범죄하여 신인화목(神人和睦)이 깨어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이로 인해 신인화목이 회복되고, 인간들의 상호관계에서 갈라지고 찢어진 인간관계를 화합하고 봉하여 화친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일치와 통일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엡4:1-6)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귀하다고 가르쳤다. 그 이유는 교회의 기본적 요소가 다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므로 교회도 온 교인이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교인이 하나되었을 때 생동력이 있고 강하고 힘 있게 뻗어 나가며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기에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한 때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4:1-3)고 강조한 것이다.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이고 교회가 분열됨은 마귀의 역사이다. 온 교인이 화목하여 하나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고 그런 교회는 계속적인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난다.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성령을 거스리는 무서운 죄악이다. 교회를 화평케 하는 자,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며 복 받은 자이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다. 신자는 언제나 교회의 화합과 화목과 일치됨을 위하여 바늘과 실의 역할을 해야 한다.

옛날에 바이자드라는 성자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황금으로 만든 가위를 선물했다. 다이아몬드도 장식한 황금 가위를 바이자드 앞에 내놓고 미소를 짓고 있을 때 바이자드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나는 나누거나 분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바늘과 실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찢어진 것을 봉합하고 갈라놓은 것, 갈라진 것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게 준 가위는 값비싼 것일지는 몰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위는 자르고 나누는 도구이다. 가위는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을 잘라 조각을 만든다. 가위는 하나를 여러 개가 되게 한다. 그러나 바늘과 실은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뉜 것을 다시 이어주고 봉합해주는 역할을 한다. 가위나 칼은 다른 것에 상처를 입힌다. 그러나 바늘과 실은 상처를 꿰매어 줌으로 아물게 하고 치유케 한다. 성도들은 사회나 교회에서 바늘과 실의 역할을 함으로 화합과 화평, 화목과 일치됨을 위해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믿는 자들을 향해 평화의 사람이 되라하신 주님의 간곡한 부탁도 결국은 가위와 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늘과 실 같은 존재로 살아가라는 교훈이다. 어디서든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디서든지 화평을 깨고 찬물을 끼얹듯이 싸늘한 분위기를 만든다. 평화를 깨버리는 자보다 화목하고 평화롭게 다독이는 자가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다.

교회나 사회나 늘 웃는 얼굴에 부드러운 말씨로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따뜻함과 기쁨이 있다. 그러나 언제나 불평을 하고 사람들 사이를 인간질하고 남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그와의 만남이 두렵기 까지 하다. 그런 사람은 누구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교회 신앙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저마다 가위나 칼처럼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하고 처신한다면 교회에 어떻게 평화가 있고 화목이 조성될까?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소리 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남을 위해 조용히 행동하는 바늘과 실 같이 화평과 화합과 화목과 일치 를 조성하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전인건강...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기도

(2면에서 계속)

3. 관절염 및 허리통증: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자세나 허리를 구부리고 오래 앉아있는 자세 등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으며, 운동부족 등으로 퇴행성관절염도 흔히 오는 질환이다.

4. 두통 및 불면증: 가장 빈번하게 오는 증상은 두통으로 대부분 긴장성두통인 경우가 많으며, 적지 않은 목회자들은 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며, 우울증을 앓기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자들의 건강을 관리할 것인가?

- 1. 우선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몸을 관리하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니며 목회의 중요한 일부이다. 생각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뀐다.

다. 운동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목회일정처럼 관리해야 한다. 주3회 1시간 이상의 조깅이나 산보, 수영 또는 테니스나 탁구 등의 운동을 지속한다.

2.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도가 음식이나 커피를 대접하더라도 이를 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육류보다는 채식을 주로 하며, 불필요한 모임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 어떻게든 6시간 정도의 최소한의 수면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3.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자주 갖도록 한다.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누어도 감정을 나누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다. 특히 부부 사이에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자주 하는 것

이 좋다. 사모의 스트레스는 목회자보다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하며 낙천적으로 살도록 한다.

4.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교회가 목회자들의 년1회 종합검진을 책임지는 것은 상식이다. 여러 목회자가 검진을 통해 암과 결핵을 조기 진단받아 치료된 바 있다.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교단이나 노회, 지방회 차원에서 시행하는 최소한의 검진을 놓쳐서는 안 된다.

5. 한명의 주치의의 갖도록 한다.

CHI는 노스캐롤라이나 목회자들에게 주치의뿐만 아니라 피트니스 코치 추천을 권장한다. 교회 내 의사가 있으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인근 병원의 의사나 크리스천 코치와 관계를 맺어 수시

로 자신의 건강문제를 상담 받아야 한다.

결론으로, 목회자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바울에게 가지 같은 만성질환이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기도함에도 질병이 목회자를 고통하기도 한다. 전인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주어지는 질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 의미를 여쭙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CHI의 프로스홀드-벨은 "목회자들은 안수 받은 성직자지만 그들 역시 결점과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요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교회와 교인들이 알고 목회자들이 건강에 대해 자유롭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와 기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On Campus Courses

2013봄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1-15(2월 11 -15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Roger Peugh

Feb 18-22 (2월 18-22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온라인 강의(8주간)

-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 A Session(Jan 7-Mar 1: 1월 7일-3월 1일)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B Session(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PM 803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Bangkok, Thailand
• Jan 7-11 (1월 7-11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Jan 14-18 (1월 14-18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 New Delhi, India
• Jan 21-25(1월 21 - 25일)
DI 852 World Religions(세계종교)
- Los Angeles, CA
• March 11-15(3월 11 - 15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Manila, Philippine
• April 15-19(4월 15 - 19일)
PM 804 Philosophy of Ministry(목회철학)
- Korea
• April 22-26(4월 22 - 26일)
DI 852 World Religions (세계종교)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iskoreanstudies@gmail.com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감사 지수를 높여라!

우리는 살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때가 많다. 그러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먼저 나타내야 하는 것은 바로 따뜻하게 맞아 주는 태도이다. 상대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그것이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부족과 연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선 "참 잘했어. 오히려 훌륭해"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격려해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종합검진을 받게 된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혈압도 수치로 이야기하고 당

뇨도 수치로 이야기한다. 그 수치가 정상수치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 신앙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다. 그 신앙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수치 중 가장 중요한 수치가 바로 감사지수이다. 나의 감사지수가 정말 정상수치인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신앙이 좋고 건강할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신앙이 좋고 건강할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신앙이 좋고 건강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정말 풍요롭게 잘사는 시대를 살아간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편리한 세상,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만하나 공상과학에 갇혀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요즘 못 살겠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옛날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자살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정도면 감사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다 더 앞서고 싶고 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도 더 높은 최고 정상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무한 경쟁이다. 그러나 그 최고의 정상을 차지해도 그 순간부터 추격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추적이 불안하고 그 추격을 따돌리느라 싸워야 하곤 한다. 그래서 계속 불안해하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불안인 것이다. 교만! 이것이 불만과 원망의 주범인 동시에 또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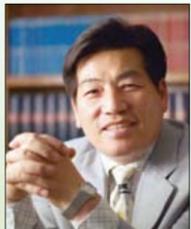
W. 브레이크는 말하기를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풍성한 수확이 뒤를 따른다'고 했다. 마치 기관차가

앞에 서서 가면 객차들이 뒤에 따라오듯이 감사 앞에 서면 틀림없이 뒤에는 풍성한 수확이 따르게 된다는 말이다.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비로소 감사할 일들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기에 성경은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앞에 부담을 느낀다. 그렇지 않은가? 앞으로 죽어 가는 젊은 아내를 바라만 보아야 하는 남편! 과연 그가 감사할 수 있을까?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병이 점점 더 깊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까?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어린 장애아 자녀를 둔 그 부모가 입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까?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가볍

게 넘길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사실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다.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세상 어느 곳으로도 꺾이지 않는 강함의 신앙인이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은 더 좋아지고 인생은 더 행복해지고 세상사람 앞에 더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이다. 감사하는 하나님께 행복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사람은 생활조건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신앙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다. 우리 모두 감사지수를 높이며 살아가자.

푸/른/초/장



박효우 목사
(풍성교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시간마다 사건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

다. 살다보면 불평할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원망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며 원수를 맺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지난 1년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고 있고 시간에 속고 일에 속고 사건과 문제에 속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이 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네, 지혜롭게 살아야지요. 그러면 지

인생에 격려, 위로하고 살아도 상처 받은 세월 아닙니까? 짧은 인생에 감사하고 살아도 아쉬운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십니까?

지난 1년 동안 감사하며 산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산 시간이 많았습니까? 금년 1년 동안 사랑하며 산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원수 맺고 산 시간이 많았습니까? 지난 1월부터 오늘까지 세월을 아끼고 산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술 취한 사람처럼 산 시간이 많았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산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 시간이 많았

먹어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화를 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드레날린(adrenaline)이란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병균이 들어와도 제대로 싸우지 않고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화를 내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악한 원수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속지 마세요. 한번만 참으세요. 한번만 감사해 보세요. 한번만 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지혜로운 아버지와 성질이 못된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

다. 아버지는 어느 날 대못 한 자루를 주면서 화가 날 때마다 나무 기둥에 못을 하나씩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 나무 기둥에는 못을 박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화가 날 때마다 지금까지 박았던 못을 하나씩 빼도록 하였습니다. 못을 빼는 것도 힘들었지만 박힌 못을 빼는 것은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나무 기둥에 못을 박을 때는 10여일도 안 걸렸지만 박힌 못을 빼는 데는 40여일이나 걸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들은 인내심을 배우게 되었고, 난폭했던 성격이 순해졌습니다. 후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정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의 살아가는 방법의 차이점은?

에베소서 5:15-21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15-21은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네 권의 책 중에 한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5:15-21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에 대한 삶의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①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입니다. ②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③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오셨나 서나 주님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④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합니까? 조금은 편리하게 살수는 있을 지라도 행복은 아니지요. 행복은 "내가 행복하다"고 깨닫고 감사할 때 오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의 마틴 셀리그만(Martin E. Seligman)은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 하

였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를 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셋방을 얻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로 아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방이 마음에 들어 주인에게 방을 빌려달라고 하자 주인은 아이가 딸린 사람에게는 방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이가 다시 돌아와서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 방을 저에게 빌려주세요. 저는 딸린 아이가 없고 부모님 두 분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은 지혜로운 어린이의 말에 그만 감동되어 그 방을 빌려주기로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식은 배워서 알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에베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 성령님을 충만히 받게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면 엔돌핀(Endorphin)이란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 몸이 건강해지고 백혈구가 많이 나와 어떤 병균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생겨도 암세포를 잡아

다. 아버지는 어느 날 대못 한 자루를 주면서 화가 날 때마다 나무 기둥에 못을 하나씩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 나무 기둥에는 못을 박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화가 날 때마다 지금까지 박았던 못을 하나씩 빼도록 하였습니다. 못을 빼는 것도 힘들었지만 박힌 못을 빼는 것은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나무 기둥에 못을 박을 때는 10여일도 안 걸렸지만 박힌 못을 빼는 데는 40여일이나 걸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들은 인내심을 배우게 되었고, 난폭했던 성격이 순해졌습니다. 후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정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복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이끼엔백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1권:가~납스 2권:다~못 3권:뜻가~소위 4권:소유~오늘 5권:오늘날~종 6권:종교~히데겔 7권:판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성구들이 이해해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2013 미주용 다이어리 신청하세요

다이어리 커버에 교회이름 인쇄, 수첩 안에는 필요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첩커버에 100부 이상은 무료로 인쇄해 드립니다(단 10월 31일까지 주문에 한함). 50부 이상 100부 미만은 인쇄비 권당 50센트씩 추가됩니다.

<p>미주판 2013 Immanuel</p> <p>다양하고 실용성 있는 내용과 세련된 디자인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큐티를 결합 임마누엘 미주판 2013다이어리!</p> <p>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p>	<p>2013 Agape Partner Diary</p> <p>미주판 2013 Agape Partner Diary (Medium Size) 다양한 짜임새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분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p> <p>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p>
<p>2013 하이움 다이어리</p> <p>30년 동안 목회자, 구역장, 교사들의 친구한 사역 도우미! 미주생활 안내가 기재되어 더욱 편리합니다.</p> <p>1-5-권은 \$6,25 51-99 권은 \$5,75 100권 이상은 \$5,25</p>	<p>미주판 2013 Qurman Christian Diary (Large Size)</p> <p>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분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p> <p>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p>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013

2013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이어리 Experiencing GOD diary! 목회자, 제직, 교사, 성가대, 구역장의 사역필수품!

1-50 권은 \$6,95
51-99 권은 \$6,55
100권 이상은 \$6,00



미국의 대선이 끝났고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미국의 정국은 특별한 정치적 변화가 없이 진행될 것 같다.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이나 아쉬워하는 사람이나 모두 앞으로 미국이 어떤 길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동시에 교차한다. 이번 선거의 중요한 쟁점은 경제문제였음에도 공화당의 후보 롬니는 국민들에게 자기와 공화당이 실패를 많이 한 오바마 정부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설득하기를 실패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신앙을 중심으로 한 이슈들도 노출되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롬니가 버지니아 유세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필

동전을 발행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의 연설 며칠 전에 전국적으로 이메일이 돌았는데 소리지르는 대문자로 "IN GOD WE TRUST IS GONE!!!" 라고 쓰여 있었다. 많은 미국인들이 동전에 있는 "In God We Trust"를 미국의 자랑스러운 모토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돈에 하나님이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을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은 1812년에 지은 가장 많이 불리 어지는 국가 중에 하나인 The Star Spangled Banner라는 노래에도 들어가 있다. 남북전쟁의 정치적 감정적 정서를 듬뿍 담고 있다. Brian Burrell에 따르면 이것은 남북전쟁

에 그들의 정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신론자들이나 일부 반기독교적인 단체들은 이 표현을 헌법과 종이화폐와 동전에서 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동전은 2007년부터 발행되는 미 역대 대통령 동전이다. 법은 대통령의 화상은 전면, 자유의 상은 뒷면에, 그리고 동전의 테두리의 얇은 옆면에는 발행 연도, 그리고 "E Pluribus Unum"과 "In God We Trust"라는 표현을 함께 새기도록 되었다. 그러나 발행한 동전 중에서 수를 발표하지 않은 숫자의 동전에서 옆면에 새겨야 할 미국의 모토인 "In God We Trust"가 빠졌다. 큰 항의를 가지고 왔다. 동전 보이콧 운동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모토를 옆면에 새기는 것은 바로 문제가 되었다. 2007년에 하원에 통과된 법은 이 모토를 반드시 '앞면에 새길 것'을 결정했다. 인디애나 하원의원 Dan Burton은 "한번 신하신 주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회오리바람을 거두게 된다. 지금 이 나라는 그럴 여유가 없다"라고 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하나님의 이름

만 글자가 중요하다. 모토의 내용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n God We Trust라는 표현의 중요성은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된다. 하지만 국가적인 모토가 동전이나 화폐에서 들어가거나 빠진다는 것은 중요성이 바뀌는 것이니 주의를 기울임이 마땅하다. 미국의 모토는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동전에 새긴다는 것은 중요하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귀한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폐나 동전에 새긴 모토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새긴 모토다. 모토가 새겨진 동전이나 화폐를 쓴다고 해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토가 새긴 돈을 바닥에 깔아 놓는다고 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심자가 목에 걸어도 주님의 심자가 될 수 없는 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콘스탄틴은 심자가를 보고 승리한 후에 심자가를 새겨 넣었다고 했다. 그 후에 심자가는 전쟁의 수호신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올해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이 많았던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목사님은 법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현재 제 믿음으로는 힘이 됩니다. 어떻게 법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요?
-로스앤젤레스 소 집사

A: 올해 한 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고산식품인 에델바이스가 추운 겨울에 눈 속에서도 하얀 꽃을 피우는 것처럼 늘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라 말한다면 소위 관점(Perspective)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고 관점을 바꾸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 나이 많은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산 장사하는 아들과 짚신 장사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짚신 장사하는 아들 장사를 생각하여 걱정을 하고 날이 개이면 우산장사하는 아들을 생각하여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걱정 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청년이 이것을 보고는 할머니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할머니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이젠 걱정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입니다. 비가 오는 날은 우산장사하는 아들이 우산을 많이 팔겠으니 감사하고 날이 맑은 날은 짚신장사하는 아들이 신을 많이 팔겠으니 감사해보십시오. 과연 가만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마음을 고쳐먹고 관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관점을 바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늘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감사하고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까? '나는 실패'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 배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현실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만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이 비치는 곳에는 맑고 따스한 면도 있지만 어두운 그늘도 있습니다. 어두운 그늘만 보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두운 그늘도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해줍니다. 비가 내립니다. 농부들은 비가 오니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비가 오면 길이 질겅다고 불평합니다. 비가 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포도를 먹으면서도 한 사람은 포도가 달고 맛이 너무 좋다고 하나 한 사람은 그 씨앗이 귀찮다면서 달콤한 포도를 먹으면서도 불평합니다. 포도씨앗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포도씨를 씹어 먹으면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같은 장미를 바라봅니다. 한 사람은 장미가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롭다고 격찬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사람은 가시가 있어 틀렸다고 불평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보지 못하고 가시만 봅니다. 그러나 사실 장미는 가시가 있으므로 더 예술품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물과 사건을 늘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늘 긍정적으로 사물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롬8: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찬양하여야 합니다. 지독한 근시였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평소 귀찮게 여기던 양복 안주머니의 안경집으로 인해 고향이 손 총알로부터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우 짐스럽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던 것이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사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모토: In God We Trust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문, "In God We Trust"라는 표현을 동전에서 제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의 대답을 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the Pledge of Allegiance에서 빼지 않고, 공화당의 강령에서도 빼지 않고, 동전에서도 빼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도 빼지 않겠다"라고 연설했다. 그의 연설은 의도적이고 정치적이었다.

롬니는 오바마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사실은 오바마의 종교적인 성향에 대한 공격이었다. 2010년 11월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 있었던 오바마는 "미국의 모토는 E Pluribus Unum(의미는 다수에서 하나로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에서 하나로' 라는 표현은 국가의 인정에는 들어가 있지만 국가적인 모토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오바마 대통령의 신앙과 속마음을 훑쳐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롬니의 의도는 또한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하나님 이름을 제외하려고 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나중에 민주당은 결정을 번복하여 정강에 'under God, 하나님'을 다시 포함시켰다. 롬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는 동전,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시의 연합군의 모토가 되었다. 1861년 M. R. Watkinson 목사는 이 모토를 동전에 넣기를 청원했다. 1864년에 의회의 승인에 걸쳐서 재무성에서 1센트와 2센트 동전에 이 문구를 넣기를 시작했다. 다음해에는 IN GOD WE TRUST 라는 표현이 금화에 은화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이 모토는 도중에 사라지기도 했다. 1883년에는 5센트 동전에서 사라지고, 1938년도에 다시 기록되었다. 1908년에 의회는 의무적으로 이 표현을 넣도록 했고, 1938년도에는 미국의 모든 동전에 모토를 새겨 넣었다. 이 모토는 1956년 냉전시대의 어려운 때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종이화폐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한 국가적인 모토가 되었다. 50년이 지난 2006년에는 상원에서 이 모토를 미국의 공식적인 모토로 결정을 했다. 2011년 하원은 다시 모토를 재확인해서 결정했다. 2003년도의, USA 투데이, CNN과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90%가 모토를 동전에 사용하는 것을 찬성했다.

In God We Trust 라는 표현은 다른 종교계에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슬림들도 코란의 표현과 유사하다고 해서 찬성하고, 심지어는 힌두교에서도 범신론을 믿기 때

를 옆면이 아니라 정면에 새기도록 하는 법에 사인을 했다.

처음에 미국의 모토가 동전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올 일이 벌써 왔는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보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제외하는 일은 세상 시스템의 목표이다. 앞으로 언젠가 이 모토가 빠지게 될 날이 오더라도 놀랄 것이 없다. 궁극적으로 세계의 재정시스템이 가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모토가 신앙적인 모토이기 는 하지만 왜 미국인들이 동전에 새긴 모토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고대시대부터 동전의 화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로마시대에도 황제들은 자기의 얼굴을 동전에 새겼다. 예수님도 동전의 화상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의 적용을 가르쳐주셨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그 화상과 글이 누구의 얼굴인가 물으셨다(막12:16).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동전은 하나님께 라고 분명한 교훈을 주셨다. 우리에게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화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글이 어

이 되었다. 중세의 십자군전쟁 때에 십자군들은 십자가를 새겨 넣으면서 자신의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심지어는 히틀러군대의 히틀러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 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고 한다. 미국의 모토도 그런 수준으로 끝나는 것은 안된다.

또한 신앙적인 모토가 새겨진 동전이나 화폐가 돈의 사용을 정당화 시켜주지는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 돈을 사람을 죽이거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는데 사용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모독은 지금도 알게 모르게 행해지고 있지 않는가?

세상은 돈을 신으로 섬긴다. 모든 우상숭배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동전에 쓰여진 미국의 모토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In God We Trust라는 표현 속에서 신앙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물질이 귀한 것임을 보여준다.

In Money We Trust의 세계관 속에서 In God We Trust의 신앙적 세계관의 준경이 있기를 갈망한다.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탬파한인장로교회 반주자, 지휘자 청빙

본 교회는 서부 플로리다 지역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한인교회로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성가대를 이끌 지휘자 및 피아노를 전공한 반주자를 구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건: 전공자로서 세례 받은 분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추천서 1통
- 연락처: 예배위원장 원춘수 장로 (Tel. 813-960-4949) 당회서기 이후근장로(Tel. 813-789-2674) E-mail: leesauto2004@gmail.com



탬파한인장로교회(담임 김용일 목사)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Tampa(PCUSA)
6011 Yosemite Dr. Tampa, FL 333634
Tel. 813-881-0068, 882-0246 / www.kapctampa.org



모나리자 스킨케어

Thanksgiving Day Special Price 11월 30일까지

Thanksgiving Day를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품권 \$30, \$50, \$70, \$100등으로 준비했습니다.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샤워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리프팅/화이트닝케어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여드름 케어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등 경락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배 경락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전신 경락	1회 \$200 \$150	10회 \$1500 \$1250	1회 FREE
Aqua Therapy	1회 \$250 \$200	10회 \$2000 \$1800	1회 FREE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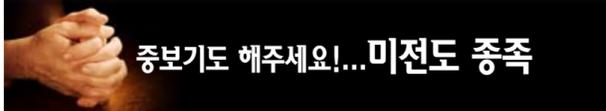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부기스(Bugis)



부기스(Bugis)로도 알려진 부긴 종족 군에는 부긴족과 4개의 밀접하게 관련된 종족들인 마이와(Maiwa), 마무주(Mamuju), 만다르(Mandar), 파타에(Pattae)족이 포함된다. 말레이시아의 부기스족을 제외하고 이 부기스족 모두 인도네시아 중앙에 있는 술라웨시(Sulawesi)주 남부에서 살고 있다.

부기스 부족들은 말레이-폴리네시아 어계에 속하는 술라웨시아어(Sulawesi)의 다양한 방언을 사용한다. 마무주족은 마무주 지역 해

안변에 주로 살고 있으며 독특한 방언을 사용하는데 그 방언은 그 지역의 무언언어 명성이 높다. 파타에족은 마마사 강변의 계곡에서 살며 마마사의 방언을 쓴다. 그 밖의 부족들은 술라웨시의 남서부 지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동굴, 폭포, 크고 얇은 호수가 있는 녹음이 우거진 산악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부기스족은 식민지 이전시대에 강력한 부긴 왕국을 건설하는데 한 몫을 한 숙련된 전사들이라는 오랜 평판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급적인 사람들로서 외부인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삶의 모습
부기스족이 한때는 난폭한 뱀사

람과 해적들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대부분 무역상, 어부, 벼농사를 짓는 농부로 일하고 있다. 쌀은 주요 생계작물이자 중요한 수출품이다. 오늘날 일부 부기스 농부들이 트랙터로 논을 일구기는 하지만 아직 대부분은 황소나 물소를 이용한다. 술라웨시 남부에 사는 농부들 중 약 1/3이 자신의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작을 해야 한다.

강 계곡에서 사는 부기스족은 사람들은 논벼와 커피를 재배하며, 해안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코코넛, 코코야, 옥수수, 매니옥, 등야자 등을 경작하고, 해안변에 사는 부기스족 사람들은 술라웨시의 몇몇 도시에서 일용 노동자로 종종 일을 하기도 한다.

고기잡이와 농사 모두 남자의 일로 여겨지는 하나, 수확기에는 부기스족 여자들도 일을 돕는다. 여자들은 집에서 비단 "사롱"(sarongs, 남자가 모두 입을 화려한 색깔의 치마)을 짜서 내다파

는 일을 한다. 대부분의 가계수입은 이러한 사롱을 팔아서 얻는 것이다.

부기스 사회의 2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계층제도와 "순환이주(circular migration)"라는 것이다. 수마트라(Sumatra), 칼리만탄(Kalimantan)섬과 말레이시아에서는 고향과 일터 사이를 계속해서 이동한다. 하위 계층의 부기스족은 부를 얻고 해외 경험을 쌓음으로써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특징들이 상당히 구조화된 사회를 형성한다.

결혼은 부모나 조부모의 결정으로 이뤄지며 대개는 가까운 사촌 사이에서 이뤄진다. 이것은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가족 내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신혼부부는 결혼 처음 몇 년 동안은 여자의 가족과 함께 살며, 가족은 딸에게 대개 물려지지만 토지와 다른 재산은 아들들과 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 부기스족 대부분은 땅에서 기른 위에 세워진 고상식 가옥에서

사는데, 이 가옥에는 땅에서 3미터 또는 그 이상 떨어져 있으며 판자 벽과 마루가 있다.

신앙
부기스족은 불교의 초기 개종자들이었지만 1600년대 초에 마카싸르(Makassarese)족의 왕에 의해 이슬람으로 개종 당했다. 만다르족 무역상들이 인도네시아의 다른 섬으로 이슬람을 퍼뜨렸고, 그 이후로 부기스족은 강하고 호전적인 수니파 무슬림 민족이 됐다. 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할 뿐 아니라 이슬람 축제와 금식을 지킨다. 하지만 그들의 이슬람 관행은 신령술(spiritism, 보이지 않는 많은 신령들의 존재를 믿는 것)과 조상숭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부기스족은 무슬림이며 400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견고하게 저항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술라웨시 남부는 작은 영적 각성을 경험

했으며 그 당시 1만명의 부기스 기독교인이 생기게 됐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본인들이 교회 대부분을 파괴하고 이슬람 투사들이 그나마 남아 있는 기독교인을 학살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정부는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문을 닫고 있으며 부기스족의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알려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성경이 아직 여러 부기스 방언으로 번역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교회는 지하로 들어갔으며 대부분의 마을에서 복음에 접하게 될 기회를 갖기 어렵다. 술라웨시의 다른 지역에서는 기독교 교회가 약간 있던 하지만 그들이 이웃의 무슬림 부기스족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다. 현지 교회들이 영적 정체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보고에 의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비주의를 행하고 있다고 한다. 성경에 따른 가르침과 목회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국민 "그래도 미래는 밝다"

‘재정 절벽’ 공포와 여야 대치 속에서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4년 더 이끌어갈 나라의 미래를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발표된 일간지 US 투데이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4년 뒤에는 나라가 지금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54%,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응답이 41%에 달했다. '지금과 같을 것이다'는 3%, '의견 없다'는 2%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국민의 다수가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교육 진흥, 테러 방지, 건강보험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간 주둔 미군이 무사히 철군할 것’이라는 응답과 ‘소수인종과 빈곤층의 생활환경이 향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72%로 나타났다. ‘실업률을 떨어뜨릴 것’이란 응답도 56%에 달했다. 미래를 낙관하는 응답률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4년 전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졌지만 국론 분열 등 대내외의 어려운 환경을 감안하면 그래도 국민 다수가 미래를 낙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천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3% 포인트다.

이집트 콥트교 새 교황 즉위...무르시 대통령 불참

이집트 콥트교의 새 교황 타와드로스 2세가 공식 즉위했다고 중동 현지 일간지 더네셔널이 19일 보도했다. 전날 카이로 암바시아에 있는 콥트교 성당에서 4시

간 가까이 진행된 즉위식에는 교계 주요 인사와 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료들이 참석했다. 타와드로스 2세는 콥트교의 한 주교가 대독한 취임사에서 이슬람교와 기독교 신자를 차별하지 않고 이집트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제118대 교황으로 선출된 타와드로스 2세는 전 교황 세누다 3세에 이어 이집트 콥트교를 이끈다. 세누다 3세는 1971년 즉위해 40년간 콥트교를 이끌다 지난 3월 17일 88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콥트교는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의 분파로, 이집트 전체 인구 8천500만명의 약 10%를 차지한다.

한편 아랍권 위성채널 알야라비아는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이 즉위식에 이례적으로 불참했다고 보도했다. 콥트교 신자인 페테르 알 나가르 변호사는 "일부 살라피 단체들의 압력으로 무르시 대통령이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가자 공습 옛새째...사상자 속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이 옛새째 이어져 19일에도 사상자가 속출했다. 하마스의 로켓포 반격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점령지대에 대규모 병력과 탱크 등을 배치하는 등 지상군 공격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협상에 나섰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금명간 휴전 협상을 이어갈지 지상군을 투입할지 결정할 방침이어서 극적 정전 합의가 이뤄질지, 지상전으로 확대될지 갈림길에 선 형국이다.

가자시티 자이툰 구역에서 여성 2명과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숨지는 등 이날 가자 전역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8명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인 사상자는 사망자 95명을 포함해 8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스라엘은 공습을 시작한 지난 14일 이래 지금까지 가자지구 내 목표물 1천350여 곳을 타격하고 아이언돔으로 로켓포탄 302발을 요격했다. 아울러 경교 차원에서 전날 하마스 라디오 방송 전파 송출을 몇 시간 동안 방해한 데 이어 이날도 하마스 공식 방송국인 알 아크시의 TV 전파 송출을 교란시켰다. 또 소집 승인을 받은 7만5천여 명의 예비군 가운데 절반가량이 동원됐으며 점령지대에 대규모 병력과 탱크, 장갑차 등을 배치한 채 지상전에 대비하고 있다. 베냐민 내타나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와 관련, 전날 주례 내각회의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작전을 대폭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하마스와의 경쟁 정파인 파타는 이번 사태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 상호 투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도 요르단강 서안지역을 장악한 파타는 지난 수년간 치열한 권력다툼을 벌여왔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지지의사를 밝힌 일부 서방 국가도 민간인 사상자 속출과 지상전 발발 가능성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날 태국 방콕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를 전폭 지지한다면서도 "가자지구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지 않고도 이를 달성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도 "지상군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현재 받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의 많은 부분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이스라엘을 "테러 국가"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고 중국도 "무력 남용 및 무고한 민간인 사상결과를 규탄한다"며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우디 국왕, 급진 이슬람 성직자 사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이 급진 이슬람 성직자 유수프 알 아흐마드를 사면했다고 중동 현지 일간지 걸프뉴스가 14일 보도했다. 아흐마드는 지난 4월 테러 범죄를 다루는 특별법

원에서 국왕을 모독하고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유포, 분열을 조장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아흐마드는 2010년 남녀를 엄격히 분리할 수 있도록 메카의 그랜드 모스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파트와'(이슬람 율법 해석)를 주장하다가 사우디 당국에 체포됐다. 그러나 한 인권활동가는 아흐마드가 고(故) 나이프 빈 압둘아지즈 내무장관과 무함마드 빈 나이프 내무차관(현 내무장관)을 비난하는 내용의 동영상 유투브에 올려 체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흐마드는 당시 유투브 동영상에서 사우디 당국이 이슬람주의자를 재판 없이 구금하고 있다며 나이프 장관과 무함마드 차관을 비난한 바 있다.



미 법원, 예수탄생 기념물 전시 제한적 법 판결

매년 성탄절에 예수 탄생 장면을 재현하는 기념물을 전시하는 기독교인들이 이에 반대하는 무신론자들과의 싸움에서 일단 패소했다. 미국 연방지방법은 19일 캘리포니아 주 산타모니카의 기독교단체가 예수 탄생 장면을 재현한 모형을 공원에 전시할 수 있도록 시 당국에 지시해달라며 낸 가처분 명령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산타모니카시 13개 기독교 교회로 구성된 '예수탄생 기념위원회'는 지난 60여 년 간 성탄절 때마다 팔레사이드 공원에 탄생 재현 모형 연작을 전시해왔다. 그러나 시 당국이 지난해 도시 전체가 예수 탄생 기념물로 넘긴다는 무신론자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 공원 내 전시공간 사용권을 추첨제로 바꿔 올해부터 전시 장소가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전시가 어렵게 되자 위원회는 시 당국의 처사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사람이 현장에 함께 머물지 않은 채 조형물만 전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라홍채 목사의 신간서적 안내

구약과 신약

본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면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망해 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과 성경의 메시지를 짧은 시간 안에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성경 66권을 총망라하여 주요 성경구절들을 목심하면서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고, 성경 각권의 해설을 통해 한눈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인목을 갖게 해준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체험함으로써 말씀지도를 사는 성도에게 바른 신앙을 정립시키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고취시켜 준다.

1 | 1권 360면 13,000원 / 2권 394면 13,000원



지금 이 시대의 말씀

본서는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여러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 현재 크리천들의 잠자는 신앙을 일깨우는 예언의 메시지와 경교의 일침을 담고 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으며,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무엇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며, 이 시대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 말씀을 풀이하며 상세히 가르쳐 주고 있다.

이단 사이비가 난무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대에 성도들이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서이다. | 412면 14,000원



칠십 이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세상도 분명히 끝나는 날이 오는데 바로 칠십 이레가 되는 날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다니엘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칠십 이레가 도래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19:11-21) 이 세상은 끝이 난다는 것이다. 알 수 없는 미래라 하여 여러 사람들이 중말의 때를 막연히 알고 현실 세계에 묶여 아무 생각 없이 허송세월하며 살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끝 날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156면 8,000원



라홍채 목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학사)
- 미국 테네코 석유회사 13년 근무
- 미국 휴스턴 신학교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신학박사(Ph.D)
- 뉴욕으로 이주, 뉴욕만민교회 설립
- 현 뉴욕만민교회목회 담임
- 저서: 한국직업훈련교본/아시아지역영역(석유)
- 조사연구평가자료/서해마다원유(석유) 조사연구/평가자료(제작중)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성경 친구약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단 이틀에 통달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시대를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자 하십니까! 성경을 빨리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시간: 2012년 12월 4~5일(오전 10시부터~오후4시)
식사 및 음료 제공 / 회비 1인당 7만원(책 4권 1권 파워포인트 포함)
강사: 라홍채 목사
장소: 백주년 기념관 제1연수실
Email: andcny1@gmail.com
주최·신청: 쿤란출판사 (02-747-1004)

한국 세미나 일정 및 교육 시간표 (2012년 12월 4~5일)

제1일차 2012년 12월 4일		제2일차 2012년 12월 5일	
오전 세미나	오후 세미나	오전 세미나	오후 세미나
구약 제1강	신약 제1강	칠십 이레 제1강	계시록 제1강
오전 10:00~11:00	오후 1:00~2:30	오전 10:00~11:00	오후 1:00~2:30
10분 휴식	10분 휴식	10분 휴식	10분 휴식
구약 제2강	신약 제2강	칠십 이레 제2강	계시록 제2강
오전 11:10~12:10	오후 2:40~4:10	오전 11:10~12:10	오후 2:40~4:10
점심시간	1일차 종료	점심시간	2일차 세미나 종료
12:10~1:00		12:10~1:00	

제 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연안

주제: 다음세대에 그리스도를



김혜천 목사 |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성경적 신앙전수의 원리 (4)

셋째로,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원리는 '환경의 원리'(The Principle of Environment)이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물론 자녀들이 공부할 교육관, 교실, 체육관의 투자도 귀하다. 필요하다.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설비에 대한 투자는 약간 적은 교회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 환경의 원리는 꼭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physical) 외부 시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모든 현상들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 등 자녀들의 관여하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신체적인 환경 뿐 아니라, 감정적인 것, 영적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들은 매우 다양하다. 시간상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다. 이 세대 문화의 특징은 매우 다양하다. 오늘의 문화는 구전시대와 인쇄시대와 영상시대가 공존한다. 혼돈의 시대이다. 글로벌시대이다. 포스트모던

고 세속적인 교육은 도덕과 가치관이 없는 교육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자녀들의 생활 영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다. 포

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신다. 이마는 사고력, 생각을 말한다. 왼팔은 율법이 행위의 원리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 문설주와 인방에도 글을 쓰고 매어 달아 놓아서 드나들면서 보고 부딪히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환경을 말한다. 아버지가 모범을 보인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더 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활동의 지점으로 삼으라 하신다.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교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환경을 만들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 사랑을 교육하는 기회로 삼으라 명하신다.

결론

이제 강의를 맺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들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1)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용하자(딤후2:15, 빌2:12). 2)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살전5:17; 렘33:3). 3)지혜롭고 경건한 상담과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잠24:6). 4)성령의 능력을 절대 의지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전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하

에 참석한 평신도 지도자들은 그래도 건강한 교회에서 오신 것 같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복음을 다시 받아야 하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깨어나야 한다. 2)또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3)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언약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리고 그 일들은 감당되어야 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손을 얹고 축복하자. 가정은 가정의 제사장이다.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성경 읽는 모습도 보이고, 봉사하는 모습도 보이고, 헌신하는 삶을 보여 주어야 한다. 내가 경험한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

세미나의 마지막 강의를 듣는 마음이 어떠한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과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 나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는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나? 느헤미야 1장의 대처를 기억

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우셨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 하셨다. 울 때에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가 세워지게 되었다. 아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아거스틴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쓰임을 받게 되었다. 자녀들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먼저 그들을 위하여 울어야 한다. 사랑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통곡의 눈물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먼저 회개하자. 내가 하지 못한 것 회개하자. 내가 무관심했던 것 회개하자. 오늘날 교회와 우리와 다음 세대의 모습은 바로 나의 죄악과 무관심 때문이었다.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셨다.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다.

셋째로, 먼저 내가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신앙전수의 3대 원리를 실천해야 한다. 적용을 확장시켜야 한다.

과연 20년 후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30년 후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를 계속적으로 세워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쇠약의 퇴로를 걸을 것인가?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맡기신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신앙전수의 3E의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하여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인물들로 세우는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한다. (끝)

물리적, 감정적, 영적 모든 면에서 하나님사랑 체험 교육적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갖고 최선 다해야

의 시대이다. 다원화의 시대이고 종교 다원주의가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이다. 그 와중에도 극단주의가 존재한다. 세속화의 물결로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무너졌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도 많이 보이지 않는다. 학교교육의 편향적이

스트모더니즘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 절대성을 부인하고, 종교다원주의로 흐른다. 이런 거대한 물결 속에서 자녀들은 자라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환경의 원리는 8절에 나타난다. 말씀을 손목에 매

남의 모든 것이 필요하다. 과감한 선택과 결단과 희생이 필요하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1)강의를 듣는 모든 분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교육적 위기 상황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갖게 되기를 원했다. 여기

나게 한다. 3가지 '먼저'를 강조하고 싶다.

셋째로 먼저 울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훼파당한 소식을 듣고 울었다. 울면서 금식했다. 울면서 기도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평일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6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ialgusa@yahoo.com / www.lalgoc.com Tel: (323)819-4499, Fax: (323)915-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박형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 Tel: (310)413-1600, (F) (310)413-1911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www.laopenoor.org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희민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2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6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주둔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 (213)197-1183, Fax: (213)19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10 (Holyway-영양예배) (KDC-한국어예배) 주일학교: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등문교회 담임목사 : 최태우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5:30 수요일기도회: 오전 8:0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평일예배: 오전 9:30 3부 평일예배: 오전 11:00 4부 평일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4:00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213)559-7728 (전화 녹음),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영어예배: 오전 11:30 월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바리새교: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10)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정병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영어)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30 (청년)4부예배: 오후 1:45 금요일예배: 오전 11:00 공회관주요예배: 오전 11:00 www.mjiopeacechurch.org Tel: (213)381-2535,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금요일예배: 오후 1:00(청년) 청, 장년영양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 임진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6:30(토)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 김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9:00 영어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15(월, 금) Tel: (818)363-5897, Fax: (818)366-9883 18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비(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전 11:45 공회관주요예배: 오전 11: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op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얼비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Tel: (714)891-2029 / Fax: (714)373-3097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성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3)384-7274, Fax: (213)384-9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성경학교: 365일 24시간 온/오프 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 박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전 11:45 토요일예배: 오전 9:15, 11:45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30(토) www.inlandchurch.org Tel: (909)822-2324, Fax: (909)822-1480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org	창대교회 담임목사 : 이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www.gpc.com Tel: (909)388-2940, Fax: (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dino, CA 92408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ly.com / e-mail: pastor@aco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합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교회)

115. 최초의 물질 지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첫 구절만큼 많이 읽히면서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구절도 드물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읽어보고 들었던 말씀이다. 아마 창조과학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관심 없이 지나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 전체를 대표하는 선언 혹은 제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창조의 선언도 아니고 제목도 아니다. 단순히 창조의 맨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맨 처음 순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의 법칙이 들어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가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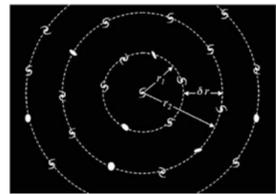
1. 시간-공간-물질의 연속체

우주는, 시간이란 우주와 공간이란 우주, 그리고 물질이란 우주, 이렇게 3개의 우주가 하나로 엮여있는, 한 개의 연합체다. 이렇게 별개의 요소들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여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연속체(continuum)라고 부른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각각 전혀 별개의 독립된 존재처럼 보이지만 서로 완전하게 의존적이다. 물질을 공간 밖으로 빼낼 수 있을까? 또 물질이 공간을 상상할 수 없으며, 또 물질은 시간이란 매개체를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

복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로마서의 첫 장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로1:20). 창조물 속에는 창조자의 성품이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3가지의 창조물인 시간-공간-지구

에 3위가 일체가 된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다. 창조된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의 것이로다”(시24:1).

창조 첫날 땅/기반암, 3일 땅/경사지층, 홍수 때/수평 1마일두께 은하들이 지구중심으로 일정 간격 두고 배열, 빅뱅이론 정면대치



Quantized Galaxy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최초의 물질인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기도 하다.

2. 최초의 지구-혼돈하고 공허하지 않았다

최초의 물질인 지구(땅, the earth)에 대해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혼돈(chaos)”이란 표현은 지구가 오-래 되었다는 잘못된 세상 지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해석된 것이다. “혼돈”의 올바른 번역은 “형체가 없고”이다.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NIV번역조차도 이 단어를 “chaos”이라 하지 않고 “formless”로 정확하게 번역하였다. “공허”도 있었던 것이 없어진 상실감(emptiness)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있게 될 것이 아직 없어서 비어 있다는 void란 표현이 옳다. 이 비어있었다는 표현은 사람의 창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2장 5절과 연결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형체가 없고 비어있는” 지구를,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6일 동안에 바꾸시고 채워 넣으셨다.

3. 최초의 지구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랜드캐년

지구의 구조를 보면 맨 안쪽부터 핵-맨틀-지각의 순서로 되어있고, 지각은 다시 특별한 형체가 없는 기반암, 그 위에 화석이 없는 지층, 다시 그 위에 화석이 있는 지층의 순서로 되어있다. 진화론적인 과학자들은 이 암석들을 차례로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라고 이름 지었다(현생대는 다시 고생대/중생대/신생대로 더 세분화 된다). 이 구분은 지질학에서 가장 쉬운 구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땅이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수께끼다. 사실 땅들이 이렇게 쉽게 구분이 되는 이유는 각각 창세기 1장의 ‘창조 첫째 날 땅’, ‘창조 셋째 날’, ‘노아홍수 때의 땅’이기 때문이다.

4.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창세기 1장의 창조순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그 순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반문하셨다(마16:26).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말씀이다. 이 사실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에서 확인된다. 지구가 맨 처음 창조되었고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은 지구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또 그 지구는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사45:18)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역면 그대로 사실이 되는 것이다.

만약 빅뱅 같은 진화론처럼 수많은 별들과 태양이 존재하고 나서 수십억 년 오-랜 뒤에 지구가 생겼다면 지구가 창조의 중심인지 확인할 길이 없게 된다. 지구는 우주에서 먼지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전혀 특별하지 않은 태양계의 전혀 특별하지 않은 행성으로 여겨질 뿐이다. 또 지구를 위해 별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별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빅뱅/진화론의 결론은 사람은 우주의 먼지 티끌일 뿐이다. 결국 사람이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다는 성경의 말씀은 말뿐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지구가 그 어느 창조물보다 먼저 맨 처음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장 1절은 인류에게 엄청난 의미가 담긴 말씀이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중심은 지구다. 하나님은 맨 처음 창조된 지구를 변형시키거나(둘째 날, 셋째 날) 여기에 덧붙여(넷째 날, 다섯째와 여섯째 날)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지구와는 비

교할 수도 없이 크고 많은 별들까지도 지구의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다.

교할 수도 없이 크고 많은 별들까지도 지구의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다. 또, 이렇게 엄청난 별과 은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지구에 쏠려 있었다. 이 엄청난 별들의 창조에 대해서도 한 마디로 “또 별들을 만드시라”라고 그 설명을 끝내버리셨다. 그 대신 그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지구에 그 빛들을 비추는 것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배치되어 있다. 성경을 떠나 빅뱅이론 진화론을 만들어낸 천문우주학자들이 깜짝 놀라 당황하고 있는 사실이다. 빅뱅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중심도 없고 그래서 특별한 곳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최근에 은하들이 특정한 배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Quantized galaxy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별의 집단은 은하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되어 있다는 말이다(그림).

창조과정에서 빛보다 먼저, 맨 처음 창조된 물질인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곳이며 우주의 시간과 물질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다. 그 이유는 그 존재의 목적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지구에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아담)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아닌가?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44)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성품리더십(12)-성직 리더십

최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1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83개 나라 중 43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9.5점을 받아 가장 투명한 나라로 인정 받았고 핀란드 덴마크가 2,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는 영도의 크기, 천연자원의 유무, 경제규모로 선진국을 가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의 도덕수준이 높은 나라일 때 비로소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고 다른 나라들이 선망하는 모델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잠14:11)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 정직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한나라의 국력은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품 좋은 국민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성품이 바로 그 나라의 국력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필수 자질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면 손해 본다는 인식들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정직함으로 오는 유익은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신뢰를 얻어 성공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정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뒷면에는 결국 정직함으로 신뢰를 얻어 성공한 사례들이 빠져있고 있습니다. 결국 정직의 성품이 성공의 좋은 리더십이 됩니다. 정직한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분별력이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면서 옳고 그름의 세계를 알고 올바른 길로 자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정서적 덕목입니다. 가정에서 정직한 성품을 키워주는 방법은,

첫째, 정직한 아무도 없어도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라고 가르치세요. 진정한 용기는 아닌 것은 ‘아니요(No)’, 내가 한 것은 ‘네, 잘못했어요(Yes)’라고 변명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둘째, 부모님이 먼저 정직한 신념을 확고히 하고 모범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의 성품을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작은 일상을 통해 개발됩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거나 작은 일이라도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 등을 올바르게 선택한 정직한 행동에 대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세히 이야기 해 주어서 정직한 성품이 모델링되도록 가르쳐 주세요.

셋째, 속임수나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가를 알려주세요. 정직의 열매는 신뢰입니다. 반대로 거짓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과는 아무도 친구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외톨이가 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세요.

넷째, 자녀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즉시 징고 넘어가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 데려가 일대일로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공개적인 훈계는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은 최대한 침착하게 하고 무엇보다 자녀의 특정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부정직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 그에 따른 벌칙을 정해주시지요.

다섯째, 자신의 결심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옳고 그름을 선택해야 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결심을 여러 번 반복하여 확고하고 말하는 습관을 기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물러서지 않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여섯째, 정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세요. 결과에 대해서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행동을 한 과정까지 세심하게 칭찬해 주세요. 칭찬과 격려는 자녀의 정직한 성품을 발달시킬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목사관: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6:00(월-금)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운 주일1부예배: 오전 9:00(한국어) 주일2부예배: 오전 10:1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국어) 수요일예배: 오후 8:00	벤델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한): 오전 11:45 EY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8:30(한국어) 예배: (한) 오전 11시 주일: 유년부: 오전 10:00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전 12:1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예배: 오전 6:30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엘파스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주에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한) 주일4부예배: 오후 2:00(말-토)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템피조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말-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에멘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창현 주일영어예배: 오전 9:00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환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제1회 전세계 한인디아스포라 서베이 정책모임

이민신학연구소 주최 내년1월부터 3년간 6개국서 실시

이민신학연구소(소장 오상철 박사)가 주최한 제1회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서베이 정책모임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모임에 대해 오상철 박사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있는 디아스포라 인구가 2억 명에 이르며 한인디아스포라는 175개국에 750여만 명이 흩어져 있다. 이들 디아스포라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돼 있기에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한인디아스포라 네트워크 및 자료 구축, 정책 개발을 위한 모임이 한국교회, 학계와 정부기관을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 디아스포라에 선교적, 복음적 관점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지만 현지 실태조사 및 전문적 통계자료 등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디아스포라 서베이(이민신학연구소)와 이민신학연구소는 전 세계 한인디아스포라 서베이를



제1회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서베이 정책 모임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 실시하며 서베이 역시 전 세계를 6개의 권역(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1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박희민 목사는 "이번 정책모임은 총 25명이 참석해 개최됐다. 지난 2년간 북미주 한인교회 실태조사의 경험을

토대로 세계한인 디아스포라 서베이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히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에 범위가 넓어 서베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 이 서베이는 현지 선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며 해당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지인들이 한인선교사들과

강학구, 장덕삼, 황삼열, 박성일, 최천용, 김성철(이상 목사), 김낙렬, 김용식, 김중식, 김창현, 김태연, 배우태, 백홍기, 이건상, 한영권(이상 장로).

▲각분과 정부위원장: (전도)이대우, 조성수, (신학)김풍운, 박성일, (대내)문성록, 이광영, (대외)황준석, 박대문, (조국통일)전영현, 민영선 (정보통신)고택원, 장덕상, (홍보)강승호, 최천용, (음악)박도성, 천조웅, (청소년)최해근, 강학구, (체육)안재도, 이응도, (평생)차병호, 임관호(이상 목사), (재정)이건상, 박완배(이상 장로).

한편 성탄 찬양제에 참가를 원하는 교회는 12월 4일까지 총무(267-640-5096)에게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33회기 첫 실행위, 조직/행사 발표

필라교협

대 필라델피아아한교회협의회(회장 박동배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6시 세전교회(담임 김선훈 목사)에서 교협 제33회기 1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실행위원과 각 분과위원장을 승인하고 각종 신규 사업을 결의했다.

각종 행사는 지난해와 동일하며 내년에는 ▷청소년 복음대회도 개최할 것과 ▷8.15광복 예배를 교협이 자체로 드리기로 했다. ▷성탄 찬양예배는 12월 9일(주) 오후 6시 구세군한인교회(담임 박도성 사관)에서 드리고 ▷신년 축하예배는 2013년 1월 20일(주) 오후 5시부터 몽고메리교회(담임 최해근 목사)

▷귀니드 양로원 추수감사 예배는 11월 20일(화) 드렸으며 ▷교협 수첩 발간 ▷교협속 목사ID를 발행키로 결정했다.

33회기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동배 목사 △부회장 이정철 목사, 제2부회장 서장석 장로 △총무 김선훈 목사 △서기 안문균 목사 △부서기 손석배 목사 △회계 박상욱 장로 △감사 전영현 목사, 김낙렬 장로.

▲실행위원: 강승호, 고택원, 김영천, 김치수, 김창만, 김풍운, 류인곤, 문성록, 민영선, 신정기, 안재도, 윤상철, 이광영, 이대우, 이응길, 임관호, 조성수, 전영현, 차병훈, 천조웅, 최해근, 최환관, 호성기, 황준석,



동부개혁장신 장학기금 마련 찬양축제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동부개혁장신 장학기금 마련 찬양축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제 26회 장학기금을 위한 찬양축제가 지난 14일 저녁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1부 예배는 문경환 목사(학감) 인도로, 기도 서옥석 학생회장, 성경봉독 고엘림 부회장, 찬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찬양팀(지휘 윤원상 교수), 말씀 박규성 목사 순서

로 진행됐다. 2부 찬양은 독창 소유영 학우(목회학석사과정), 합창, 독창 소철화 교수, 간증 이중주 학우(목회학석사과정), 인사 문경환 목사, 헌금 및 찬송, 봉헌기도, 합창, 축도 박규성 목사의 순서로 마쳤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 교단신학교로 1987년 설립돼 지난 5월까지 39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설립된 해부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후원을 약화해 왔고 있다.

이와 21일에는 필라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길 목사), 28일(수) 오후 8시에는 예사랑장로교회(담임 손관권 목사)에서 음악회를 갖는다. (유원정 기자)

한인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의 삶과 역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볼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 담임)는 "이민신학연구소가 6년 됐다. 미주지역 교계대표 모이는 것도 어렵는데 세계전역에 흩어진 권역별 선교사외에도 이민자들과 그들의 삶에 대한 것도 조사가 돼 175개국 750만 디아스포라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방향설정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서베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희민 목사와 송정명 목사 외에 박성원 미주한인재단 전국총회장, 김경일 세계한인선교대회 사무처장, 김광성 주안대학교대학원 교수, 강성일 중남미선교회장, 김병선 코디아국제대표, 송춘식 감리교선교사회 회장, 샌들러 임 빌리그래함센터 다민족사역 디렉터, 양창근 파과과이선교사 등이 참석하여 각 권역 별로 논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은 행사 마지막 날 열려 폐회예배 전 잠깐 동안 열린 점, 그리고 이번 정책모임에 참석한 많은 선교사들이 일정상 사역지로 돌아가 해당지역과 관계 없는 자들이 토의내용을 발표하는 등 다소 김빠진 반쪽짜리 기자회견으로 전락하게 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박준호 기자)



신임 회장 박정인목사(좌)가 직전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아리조나교협 새회장에 박정인 목사 제19회 정기총회, 부회장 김환곤 목사 선출

아리조나 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재욱 목사) 제19회 정기총회가 지난 12일 오후 6시 피닉스장로교회(담임 윤원환 목사)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박정인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 박정인 회장은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아리조나 지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박정인 목사의 인도로 시작돼 김정태 장로(새생명장로교회) 기도, 회장 김재욱 목사(아리조나열방교회) 설교, 성찬식(오영훈 목사 집례), 한상균 목사 광고, 윤원환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김재욱 목사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은혜'(눅 7:36-50)란 제목으로 "발 닦을 물조차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을 초대

한 무례한 바리새인과 지은 죄는 많지만 눈물과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비교하며 "아리조나 지역 모든 교회가 마음을 열고 칭찬하는 가운데 신앙의 회복이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에서 안건처리와 회부처리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신임회원으로 좋은나무교회(담임 박경춘 목사),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정해관 목사)가 가입됐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정인 목사(새마음성결교회) △부회장 김환곤 목사(아리조나소망교회) △서기 흥연선 목사(피닉스한인감리교회) △부서기 김용석 목사(아리조나한인장로교회) △회계 이규환 집사.

(기사제공: 아리조나교협)



목회서신



후회 없이 살기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로교회 담임)

인간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 영국의 일간지인 데일리메일 인터넷 판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The Top Five Regrets of the Dying)를 소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호주의 한 요양원에서 말기환자들을 돌보던 간병인 브로니 웨어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모아서 펴낸 것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말기환자 병동에서 일하면서 죽음의 문턱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시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관찰했던 시한부 환자들 가운데 가장 후회하는 일은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 '감정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나 '옛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다는 후회도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습관과 패턴에 묶여서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죽음에 대해 공포와 분노를 느끼던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이 되자 많은 생각을 거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모르는 인생의 종말을 생각할 때 하나같이 사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 쉬운 불치의 병은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죽음을 앞두고 더 이상 후회가 없어야 하고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여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을 배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회에서 자유하려면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부끄럼 없는 삶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대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양동 870-15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부구 복동동 340-1(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청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http://gimpocho.org Tel. (82)31-984-2939,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수지구 복동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8491~5, Fax. (062)522-4834 500-170 경교광역시 북구 중앙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9: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형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인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베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3679(주말) VIA DEI QUINTILI 32-33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상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침례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수원시 수지구 복동동 1312번지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침례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수원시 수지구 복동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8-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262-1(152-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36-99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330-3(152-262)	
수령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9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0A(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Saebeo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구 인사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경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말-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서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말-토) Tel. (82)2-842-1968, Saebeo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786-6579, Saebeo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동 49-45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십자가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베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창신구 용성로 415 www.yank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자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침사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경일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2999, Fax. (82)2-482-29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북4동 104(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성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동부교계 기사판



반주자와 지휘자 청빙

플로리다에 위치한 템파한인장로교회(담임 김용일 목사)가 반주자와 지휘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전공자로 세례교인. 이력서, 추천서 각 1통씩을 이메일(teesauto2004@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생모집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 박사)가 학생을 모집한다. ESL, 학사, 석사, 박사의 학위과정을 온 캠퍼스(I-20 발행)와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다. 수시 입학이 가능하다. 메인캠퍼스는 미주리 주 웬츠빌에 있으며 워싱턴DC에 분교가 있다. 웹사이트 www.midwest.edu

“2012 해외기독문학” 출판의 밤

미주기독문학동우회(회장 이철수 목사)가 주최하는 “2012 해외기독문학” 출판의 밤이 12월 16일(주) 오후 5시 뉴욕시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열린다. 1부 예배와 2부 출판의 밤으로 나눠 예배 설교는 김상모 목사가 하며 2부에서는 시평과 음악 공연, 회원들의 작품낭송이 있다. 기독문학동우회는 그동안 2-3년에 한 번씩 문집을 발간해왔으며 이번에 제 5집을 출간했다.

뉴욕동원교회 찬양집회

뉴욕동원교회(담임 박희근 목사) 청년부가 주최하는 “This is our God”(롬5:8) 찬양집회가 12월 1일(토) 오후 6시 열린다.

뉴욕목사회 회장 최예식, 부회장 황동익 목사

제 41회 정기총회, “편견 버리고 사랑과 화합으로 섬기겠다”

뉴욕목사회(회장 김승희 목사)가 지난 19일 제 41회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최예식 목사, 부회장에 황동익 목사를 선출했다.

최예식 목사는 “대화하며 진실함으로 수성을 가지고 편견을 제하고 사랑과 화합과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미래지향적인 목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섬기겠다”며, “사도바울처럼 주를 위해 살고 죽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주고 열매 맺는 목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 119명이 등록한 가운데 김승희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조급석 목사의 개회기도 후 회장인사,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칙제정, 신임회원환영, 전회기록 낭독, 총무보고, 감사보고, 재정보고, 임원선거, 신구입원 고제, 안건토의 및 광고, 폐회기도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임회원으로 김명욱 목사 등 총 7명이 가입했다. 사업으로는 성삼탄축하예배 및 신임회원 이취임예배 연합 찬양



신구 임원교제식. 앞줄 가운데 꽃다발을 든 왼쪽부터 김승희 직전회장, 최예식 신임회장, 황동익 부회장.

기도회 연합신년하례 △자선음악회 뮤지컬 요나 관람 △미동부 목회자연합 체육대회 △김삼환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성지순례 후원골프대회 △박성현 교수 초청 성경세미나 △목회자성지순례 등의 행사를 가졌다.

재정은 총수입 270,172.34달러, 총지출 267,619.82달러, 잔액 2,552.52달러로 보고했다. 선관위(위원장 신현택 목사) 경과

보고에 이어 황경일 목사의 기도 후 후보자 소견을 발표하고 시작된 선거에서 회장후보 부회장 최예식 목사를 박수로 추대했다.

부회장 선거는 3명의 후보가 소견 발표를 한 후 투표에 들어가 1번 황동익 목사 65표, 2번 노인수 목사 15표, 3번 김명환 목사 36표, 기권 2표로 과반수를 얻은 황동익 목사가 부회장에 당선됐다.

황동익 목사는 “부족한 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회장님을 잘 보필하고 목사회가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선거는 6명 추천을 받아 김상태 목사, 김진화 목사, 한준희 목사 3명이 선출됐다. 또 이날 40회기 3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수고한 2명 부서가 이철희 목사와 부회계 전희수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신안건 토의에서 제안된 증경회장들의 종신회원 및 연회비 면제는 종신회원만 받아들여기로 했다. 또 정부회장 출마 3회 제한은 무산됐다. 이외에 3년간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에 대한 회원권 여부도 논의됐다. 회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최예식 목사(부회장)의 인도로 기도 이성현 목사, 설교 김종덕 목사, 광고 김희복 목사, 축도 김정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종덕 목사는 “성만찬과 목사(고전10:16-17)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초대교회와 중세에 제자들하고 지도자들, 성도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는데 이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준 것은 성만찬이었다. 성만찬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연합을 확신하고 형제자매와의 기쁨, 또 천국을 맛보게 된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피흘림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짐하게 된다. 자신의 몸과 피를 주어 우리들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교인들을 위해 몸과 피를 내주시고 있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교협 상견례...분과별 사역발표

“신분증 발급, 일간지 광고, 지역모임에 임원 방문”

뉴저지교협(회장 박상천 목사)이 지난 14일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가졌다.

소망교회에서 열린 이날 조재원 목사 기도 후 박상천 목사는 인사말에 이어 26회기 동안 펼칠 중점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교협소속 목사에게 신분증 발급 (2)주간지 광고 (3)지역 교회들 모임 및 각 교단 모임에 임원들 방문 (4)분과별 사역의 활성화

이어서 부회장 이성일 목사는 26회기에 결정한 행사를 소개했다.

△12월 19일-증경회장단 초청 만찬 모임 △2013년 1월 13일-신년하례회 △2월 중-청소년 호산나 대회 △5월-어린이 찬송대회 △6월-호산나전도대회

또 총무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담임)가 임원회에 논의된 각 분과별 예정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각 분과위원들이 계획서를 발표했다

Table with 3 columns: Position, Name, Church. Lists members like 박상천 목사, 이성일 목사, 박근재 목사, Jay Kim, 조재원 목사, 권형순 장로, 오준택 목사, 이병준 목사, 이수원 목사, 우종현 목사, 정철 목사, 김영호 목사, 서병용 장로, 이장길 목사, 박인갑 목사, 임창기 목사, 박태열 목사, 강영인 장로, 방갑순 장로, 김학륜 사무, 정정숙 회장, 김인영 목사, 김민호 목사, 윤사무열 목사, 소망교회, 리빙스턴연합감리교회, 팔그림교회, 시나브로교회, 소망교회, 에셀교회, 소망교회, 뉴저지행복교회, 시온성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예인교회, 하메스트교회, 팔그림교회, 머릿돌교회, 주예수사랑교회, 뉴저지코너스교회, 유니온한인연합감리교회, 뉴저지초대교회, 한빛교회, 한빛연구소, 페이퍼리치, 밤모스연합감리교회, 하늘성교회, 감람원계교회

▶ 임원 및 분과위원

다. 각 분과별 예정사역은 다음과 같다.

- (1)선교분과-선교커피퍼런스 개최, 도시선교사역 후원 (2)교육분과-실교리니 개최 (3)음악분과-희망음악회 및 어린이 찬양대회 개최 (4)체육분과-교협기금모금 골프대회 개최 (5)사모분과-성경암송대회 개최 (6)청소년분과-청소년 전도대회 및 청소년 찬양경연대회 개최, 뉴저지목사회와 연합해서 청소년센터의 활성화 추진. (기사제공: 뉴저지교협)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1월 월례모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1월 월례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황영진 목사)가 오는 12월 20일(목) 임시총회에 앞서 지난 15일 월례모임을 갖고 합심기도와 회무를 처리했다.

기쁨과 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드린 1부 경건회는 전희수 목사 사회로 기도 이종명 목사, 말씀 박진하 목사, 합심기도, 축도 유상열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진하 목사는 사도행전 13장 18-21절 말씀을 본딴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자신이 되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돌아보자”고 말했다.

2부 회무는 황영진 목사 사회로

박마이클 목사 기도 후 시작돼 스세 금공제 허가(The Bread and Gospel of Eastern America 영어명칭 변경) △아동후원 계좌 놀라기 운동 △오병이 원고모집 △이사회 활성화 △후원회 지원 △개인후원자 후원금 받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영진 회장은 “우리가 보낸 1만 달러가 시드머니가 돼 콜롬비아 동선교센터가 지난달 헌당식을 마쳤다”며 “그러나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많아 물질적 후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 뉴욕에서 실시하는 VOC훈련(내년 초 예정)과 미주 각 지역 기아대책과의 연대 및 협력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2월 모임 및 임시총회는 20일(목) 오전 11시 뉴욕낙원장로교회(담임 황영진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사랑 나눔 행사

뉴욕교협(회장 김중훈 목사)이 매년 시행하는 나눔 행사가 지난 19일 오후 2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렸다. 과일바구니, 쌀, 라면 등을 뉴욕연합의 8개 기독단체에 전달했다. 8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국제장애인선교회, 밀알장애인선교회, 코코장애인선교회, 농아인교회, 선한이웃어린이선교회, 무지개집집, 뉴욕선교사모임, 탈북난민정착선교회.



뉴저지교협이 첫 모임을 갖고 분과별 사역을 발표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contact info, including: 뉴욕셋세미네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중부교회, 뉴욕초대교회, 뉴욕효신장로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턴교회,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베다니교회, 어린이양교회, 유니온연합감리교회, 주미전교회, 중부뉴저지장로교회, 퀸즈장로교회, 퀸즈연합교회, 한마음침례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브라질 서교교회, 브라질 한인교회, 브라질 새소망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OC기독교교회협 새회장 민경엽 목사

제22회 정기총회, 부회장 송규식, 윤덕곤 목사 선출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제 22차 정기총회를 열고 민경엽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총회에 앞서 민경엽 목사 사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윤덕곤 목사 기도, 박용덕 목사 설교, 한기홍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거룩한 사역’(마15:21)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박용덕 목사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 작은 무리도 큰 무리 속으로 들어가 그곳을 변화 시켜야 한다.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

역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엄영민 목사는 총회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절차에 따라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를 통해 회원들은 민경엽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송규식 목사와 윤덕곤 목사 부회장, 신학담당 김기동 목사, 장학담당 손병렬 목사, 대외담당 박상목 목사, 영성담당 이호우 목사, 교육담당 민

승기 목사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민경엽 목사는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하며 지역사회를 돕는 교회 협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동안 쌓아 놓은 전통과 업무를 잘 이어나갈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OC교협은 올해에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비롯해 영적 대각성 집회, 목사 사모들을 위한 섬김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OC교협에 관한 문의는 (714)603-9827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oc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 앞줄 우측 네번째가 신임회장 민경엽 목사.



남가주연목회가 주최하고 연세대 남가주총동문회가 주관한 추수감사예배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기도 응답받아 열매맺는 성도되자”

남가주연목회 주최 추수감사예배 성료

연세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회장 서문준 집사)가 주관하고 남가주 연세동문목회자회(연목회 회장 정요한 목사)가 주최한 추수감사예배가 18일 오후 6시 나성동산교회(담임 한기형 목사)에서 열렸다.

정요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연목회 수석부회장 김영일 목사(해피선교회 대표)가 대표 기도를, 연세과이어가 특별찬양을 했다. 이어 한종수 목사(얼바인침례교회 담임)가 ‘응답받는 비결’(눅 11: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한 목사는 “연세대는 10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영적인 면을 주도하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3.1운동 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2% 정도였다. 그러나 민족대표 33인중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고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리스도인들이 많아졌지만 그때처럼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기도의 응답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돼 있지 않아서이다.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로인해 큰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라 강조하며 “연세정신을 회복시켜 연세인들 때문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설교 후 조종곤 목사가 헌금기도를 했으며 이날 드러진 헌금은 마약중독자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펼치고 있는 해피선교회에 전달됐다. 또한 서문준 회장과 연목회 증경회장 지용덕 목사(미주양곡교회 담임),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풍성한교회 담임)가 축사를 했으며 한기형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가나안교회 창립 40주년 감사음악회에서 본교회 성가대가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다.

가나안교회 설립40주년 감사음악회 성황

찬양대 ‘대관식 미사곡’, 핸드벨 찬양팀 연주

가나안교회(담임 이철 목사)는 교회설립 40주년 감사음악회가 18일 오후 4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감사음악회는 본 교회 성가대(지휘 백경환 목사)가 모차르트 작곡 ‘대관식 미사곡’을 불러 교회설립40주년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또한 소프라노 이지은, 알토 안경희, 테너 김대원, 베이스 이영 등이 솔로로 나서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또 본 교회 핸드벨 찬양팀

이 출연해 ‘Who is on the Lord’s side’, ‘Marching to Zion’ 등의 곡을 은은하게 들려주었다.

한편 이날 음악회전에 열린 1부 예배는 이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 이동수 장로가 기도, 김대순 본교회 원로목사가 ‘복음중의 복음’(요 3:16-17, 눅 19:1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박준호 기자)



오방순복음교회에 권사취임식에서 취임한 권사와 담임목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방순복음교회 권사취임예배

오방순복음교회(담임 최영애 목사)는 김순덕, 김정란 권사취임예배를 18일 오후 6시에 개최했다.

최 훈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취임예배는 김주영 목사(순복음 북미수호총회 서남부지방회 부회장)가 기도를 했으며 석종규 목사(순복음 북미수호총회 총무)가 ‘주님께 붙잡힌 사람’(빌3:7-14)이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서약, 공포, 기념패증정식으로 이어졌으며 백무산 목사(한빛교회 담임)가 권면을, 윤성호 목사가 축사를 했다.

이날 예배는 석종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교협 제43회기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 제43회기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12월 2일(주) 오후 4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개최된다.

▲ 문의: (323)913-4499

케이르성경 강사 훈련세미나

케넬대학교(총장 박태문 박사)에서는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케이르 성경강사 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태문 총장(케이르성경공부 저자)이 직접 강의하는 본 세미나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케넬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참석자들에게는 강사자격증이 주어진다. 회비 100달러.

▲문의: (714)995-9988

미주크리스찬문인협 송년모임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운 목사) 11월 월례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송년모임이 11월 24일(토) 오전 11시30분 만리장성(989 S. Dewey Ave)에서 열린다. 선불교환 시간과 글 낭송의 시간도 있다.

▲문의: (213)249-0771m (310)612-9580

교육전도사 청빙

나성서부교회(담임 이정현 목사)가 유초등부 교육전도사를 청빙한다. 정규신학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료 최소 1년 이상 어린이 사역 경험을 갖고 있으며 영어설교가 가능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면 된다.

▲문의: lakwpc0316@yahoo.co.kr

KPLA 찬양사역 세미나

KPLA(Korean Praise Leader Association 디렉터 김성아 전도사)는 12월 3일(월) 오후 6시 세미나를 한인 타운 내 가스펠하우스(대표 김미나)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꿈이 있는 자유’ 정종원 목사(아이엠처치 담임)이며 찬양인도자들을 대상으로 열리게 된다.

▲ 문의: (213)880-3645, sing1981@gmail.com



나성소망교당교회는 새생명 감사축제를 18일에 개최했다.

나성소망교회 감사축제 성료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울 목사)는 지난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이란 주제아래 2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웃음치료 강의, 3부 만찬으로 나뉘어 1부 예배에서 김재울 목사는 ‘영생의 길을 주심을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전했고 2부는 손상언 웃음치료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들었으며 본 교회 장로와 남자 집사들로 구성된 남장금 음식팀이 준비한 만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에게는 겨우살이차와 김재울 목사의 저서 등을 증정했다.

(기사제공: 나성소망교회)

유초등부(K-5th Grade) 교육전도사 청빙

Required Qualifications

1. 정규 신학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Be currently enrolled in seminary or have completed it
2. 최소한 1년 이상의 어린이 사역 경험이 있는 분
At least 1year of children ministry experience
3. 영어설교 하시는 분
Fluent English speaking

Application Requirements

1. 이력서 (Resume)
2. 자기소개서 (Personal Statement)

보내실 곳: lakwpc0316@yahoo.co.kr

제출된 서류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같이 편한교회 군대같이 강한교회
나성서부교회
Korean Western Presbyterian Church of L.A
www.lakwpc.org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제 43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늘 저희를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와 교역자들이 하나되어 지역사회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하여 제 43대 남가주교협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2년 12월 2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주소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문의 교회 (323)913-4499 / www.lafgc.com

회장단	
· 회 장	진유철 목사
·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
· 부 회 장	강용순 목사 김기섭 목사 김성민 목사 박형은 목사 우광성 목사 이동준 목사 이정현 목사 정우성 목사 지윤성 목사 황의정 목사 (각지역교협 회장)
· 총 무	양경선 목사
· 부 총 무	이 일 목사 김철수 목사
· 협 동 총 무	남철우 목사 백낙균 목사 (지역교협 총무단)
· 서 기	조요한 목사
· 부 서 기	차원희 목사
· 회 계	홍성관 목사
· 부 회 계	김종태 목사
· 감 사	이홍오 목사 권오승 장로

속하와관대신에 동부 센터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겪기 위한 성금으로 대주십시오. 모든 문의는 총무 양경선목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213)255-1725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735-3000 Fax: (213) 735-3111 www.theckc.org

기공협 '기독교 공공정책 10대 과제' 제안

대선후보들에...기독교문화유산 보호, 종교교육권 등 내용

D-30. 제18대 대선을 한달 앞두고 한국교회와 한국 기독교와 관련된 공공정책 10가지를 선정(표 참조), 각 대선 후보 측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에서 기독교 정책을 수용할지 여부와 정책에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전용태)는 19일 오전 서울 연지동 다사랑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8대 대선 10대 기독교 공공정책'을 발표했다. 기공협은 이같은 제안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 오는 27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기공협은 이어 29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동 국민일보 빌딩 12층 우뿔에서 '대선 기도회 및 대선후보 기독교 공약 발표식'을 가질 예정이다.

기공협의 10대 정책 제안 내용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정치권을 향해

꾸준히 요청해온 사안들로 구성됐다. 전용태 기공협 대표회장은 "올 초부터 교계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제안들 가운데 가장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추려 냈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및 활용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전통·민족 문화 유산에 치우친 문화정책을 지양하고, 방지되고 있는 근대 기독교 문화 유산에 대해 정책 당국이 공정하게 평가하고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것. 주된 건의 내용으로는 100억원 규모의 '근대 기독교문화연구소 설립·지원'과 기독교선교 시설에 대한 문화재 지정 등이다.

미션스쿨로 불리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도 포함됐다. 김철영 기공협 사무총장은 "현재 종립 사립학교들은 평화정책 때문에 종교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회복

으로 헌법상 보장된 종교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은 종교를 고려한 선지원 후추첨제 실시, 교육관련법 개정을 통한 종교교육 실시 명문화 등이다. 또 현행 '종교일반(100%)'으로 구성된 종교과목은 '종교일반(30%)과 '해당종교(70%)' 과목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의 종교관련 예산편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던 사안이다.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재정지원과 포퓰리즘(인기형합주의)식 예산편성 관행을 중지해달라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기공협은 "종교관련 예산산정의 집행·감독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 대한 재산권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기공협은 '종교단체 재산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실명제관련 법규정을 교회에도 일

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교회 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특수성을 법률적으로 인정해 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상당수 교회는 교회재산의 사유화 방지와 공적 성격을 위해 유지재단 명제와 교회재산 등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실명제 위반이라는 법적용으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밖에 기공협은 국가와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실시 폐지,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 반대,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자유 보장 등도 요구했다. 기독교에 대한 편파·외국 방송 보도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처음으로 제안했다.

기공협은 이같은 정책제안 발표와 함께 '정치권과 대선후보에 전하는 제안'을 통해 "이들 정책 제안에 대해 향후 각 후보가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는지 분석해 전국교회에 알려 나갈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기독교 외에 타 종교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라의 발전·민족화합" 한마음 기도

국가조찬기도회 '2012 대통령선거 위한' 예배

국가조찬기도회(회장 노승숙 장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교계 지도자, 성도 등 1만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가조찬기도회 헌신예배'를 가졌다.

김명규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에서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가 '조국은 부른다'(사 6: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크리스천이라면 어려움에 빠진 나라와 민족의 미래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선출해야 할 대통령은 민족과 조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늘 부르짖는 이 기도가 이 나라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합심기도회에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다함께 기도하자"고 간

구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는 축사를 통해 "화평케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교회가 화합과 통합의 구심점이 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동아줄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 경제성장률과 함께 민주주의를 이만큼 발전시킨 것도 교회의 힘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종교계와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대북 민간교류협력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노승숙 회장은 "기도와 예배가 국가발전 원동력을 수 있도록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 종교차별 실태조사 중지하라"

기독교대책위, 기자회견문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친불교 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에 의뢰해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종교차별 실태조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계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연론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가 왜 종교차별을 조장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는 학내 종교차별을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종교차별 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서를 140여 학교장 앞으로 보냈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학교의 종교교육 자유와 학생들의 종교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그 내용을 위한 위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종립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학생들

에게 불편을 주며 자칫 종교 간 갈등과 특정 종교에 의한 다른 종교 억압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즉각 중지토록 국가인권위에 요청했다. 교계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이 같은 부당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인권위 설문조사는 30일까지 실시되며 조사 대상 147개 학교에는 기독교 학교 40여 곳이 포함돼 있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는 설문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문서를 전국 350여개 초·중·고교에 발송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연론회, 예장 합동 통합 고신 합신 백석 총회, 기감 기성 기침 기장 총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명목으로 종자연에 연구용역을 위촉 논란을 일으켰다. 전국 300여개 기독교 중·고교의 교장 등은 지난 8월 30일 '기독교학교 탄압저지 결의대회'를 열어 종자연의 설문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교단인사 2000여명 총회 개혁의지 표출

예장합동 '총회 정상화위한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예장 합동 총회의 목회자 및 장로 2100여명은 15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총회 정상화를 위한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갖고 총회 개혁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참석자들은 파회된 제97회 총회의 속회와 총무 해임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로써 교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중심의 속회 요구와 정치권 중심의 대타협이라는 교단 내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속회 요구' 쪽에 힘이 실리게 됐다.

기도회에선 총회 개혁 의지가 강하게 분출됐다. 임구에선 '주여! 우리 총회를 살리소서' 문구가 적힌 파란색 리본이 배부됐고 예배당 안에는 '주여, 수치를 벗기시고 절망에서 일으키소서!' 총회 정상화를 위하여 총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측,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회) 박보근(남곡제일교회) 이근영(인천제일교회) 목사는 아모스 호세이사서를 본문으로 "수치스러운 현실 속에서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그간의 범죄를 누워치고 통회·자복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부르짖었다.

권 목사는 "영적 혼란에 빠진 지금의 상황은 아모스 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며,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치욕스런 모습을 드러내며 사회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불의 앞에 비겁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자"고 말했다. 이 목사는 "총회장과 총무, 관련 인사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기보다 주님처럼 골고 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발적으로 KO패 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면서 "그때 개인과 교회 교단 한국교회 전체의 명예와 이미지가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계 '18대 대선후보초청 토론회' 추진중

한교연, 한 장총, 미래목회포럼, 등 공동 추진

[CBS]다음달 19일에 치러지는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독교계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국기독교기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교회 대선후보 정책토론회 준비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초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대강당에서 '18대 대통령 후보 초청 한국교회 정책토론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요섭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후보 정책 토론회를 통

해 한국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관심도와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보편적 기독교 가치를 대대로 하는 창조질서 회복과 생명존중, 삶의 질 향상, 역사인식, 섬김과 나눔 등에 대해 후보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들어본다는 계획이다.

정책위원회 총무 박종연 목사는 "교회의 요구만 제시하는 토론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가장 본질적인 종교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와 종교의 지위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국 교회를 대표해 목회자 2명과 대학 교수 등 4명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며,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가 토론회에서 다뤄질 내용을 정리한다.

준비위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측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측,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회와 종교의 지위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국 교회를 대표해 목회자 2명과 대학 교수 등 4명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며,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가 토론회에서 다뤄질 내용을 정리한다.

준비위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측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측,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계 단신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내년 2월에 실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내년 2월 26일 치러진다.

감리교 제30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일남 감독)는 19일 감리교본부에서 모임을 갖고, 후보자 자격논란으로 치러지 못했던 감독회장 선거와 서울남연회, 동부연회 감독선거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두 달 전인 다음달 27일부터 이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감독회장 선거에는 현

제까지 6명의 후보가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가 내년 2월 26일 선거일을 확정지은 데는 감리교 연회가 열리는 4월 전에 선거를 치러 감리교를 정상화시켜보자는 선관위 위원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선교사 첫 기착지 표지석 부산에 세워져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 선교사의 첫 출발지를 기념하는 표지석이 세워진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부기총)는 오는 12월 1일 '제4차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에 앞서 오후 3시 부산시 중구 광복동 입구에서 '한국기독교선교사 첫 기착지 표지석' 제막

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막식이 진행되는 올해는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 역사를 재정립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기총 기독교역사관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수용 목사는 "이번 제막식이 부산 교계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추진될 기독교역사관 건립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기총은 이번 제막식을 통해 기독교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발굴 등 부산의 교회가 조선의 근대문화에 기여한 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막식이 진행되는 올해는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 역사를 재정립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기총 기독교역사관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수용 목사는 "이번 제막식이 부산 교계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추진될 기독교역사관 건립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기총은 이번 제막식을 통해 기독교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발굴 등 부산의 교회가 조선의 근대문화에 기여한 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적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4. 사모의 비전가꾸기

사모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남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비전을 포기하는 사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사모들이 포기한 그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마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신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시절에는 아브라함을 사를 실망시키는 일을 두 차례나 하였습니...

니다. 20여 년 전 부른 꿈을 안고 온 식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산호제 임마누엘 교회였습니다. 한국에서 사모들을 위한 사모전문 전화상담(평화의 전화)을 개설하고 사모들의 애환을 담아왔습니다. 그 후 사모상담교육원을 개설하여 많은 사모들이 치유와 회복을 맞고 한창 재미있게 사역을 하는 중이었는데 남편의 주장에 의해 갑자기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으켜주셨습니다. 전쟁터에 남은 잿더미 속에 숨어 있던 작은 불꽃들을 다시 지펴주셨습니다.

사모교실, 아내교실, 여성축제 등 사역을 일으켜주시더니 선교사부부축제를 통해서도 오지에서 안타깝게 울부짖는 사모들을 위로하는데 사용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마와 연결되어 가정사역을 하게 되었고 지난 9월 27-29일에는 산호제에서 자마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모축제도 하였습니다. 바로 20년 전 슬프게 떠났던 바로 임마누엘교회 그 장소에서 말입니다. 사모님들을 섬길 준비를 하려던 많은 날들의 사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를 생각해보니 점점 감각의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한창 재미있게 사모님들과 함께 숨을 쉬었었는데...

가슴속에 품었던 모국 땅의 사모들이 그리워 몸부림치다 못해 밤이면 견딜 수 없어 국제 전화라도 걸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 그러나 남편의 죽음은 이 모든 사역의 꿈을 산산조각내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산호제는 잊을 수 없는 곳

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통곡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구나" "내가 겪은 고통을 내가 왜 모른척하겠니!" "너의 울부짖는 기도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니" 주님은 나의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너의 아픈 곳에서 새살이 나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얼마나 시원했던지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결정체였습니다. 주님난 정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되어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은 어느덧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흘리던 눈물되어 또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재신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네요. 더 이상은 할 수 없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선 한 여인의 절규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순간 나의 야망도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플랜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비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비전 포기하는 사모야망 버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모의 비전 이루어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그늘 아래서 비전을 펼쳐 갈 것을 생각하며 가슴 부풀게 날아온 곳이 산호제 임마누엘교회였습니다. 그때 교회형편은 매우 약하였습니다. 교인들은 잔뜩 기대를 걸고 이제부터 교회가 부흥될 것을 확신하며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짐도 채 정리하지 않은 어느 날 고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우리 가족은 임마누엘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교인들 앞에 눈물도 제대로 흘려보지 못하고 함께 슬픔을 위로하지 못한 채 산호제를 떠나온 이후 내안에 있는 눈물은 꼭꼭 감추어둔 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하나님은 드디어 그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혹독한 광야학교의 고된 훈련이 끝나는 어느 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우리 가족을 LA로 옮기셨습니다. 여호와이레 되시는 하나님은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을 만나게 하시더니 그동안 꺼져가고 있던 비전을 다시 일

이었습니다. 그 중에 임마누엘교회는 멀리서도 애뜻한 정을 가슴에 품은 채 더욱 더 잊지 못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에서 사모교실을 하게 되다니요...정말 하나님은 세월들과는 상관없이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마십니다. 토요일 새벽에는 강단까지 맡겨주셔서 귀한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눈물은 어떤 종류의 눈물일까 생각하면서도 끊이지 않는 눈물은 속에서부터 나오느라 매우 소리가 요란하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문득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고인이 눈을 감던 그 날이 생각납니다. 임마누엘 교인들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던 일입니다. "주님, 교인들에게 고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북받쳐 올라오는 눈물을 꿀꺽 삼킨 채 오열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울지 못한 것이 20년이 흘려간 오늘 이렇게도 많은 눈물이 흘러내릴 줄이야! "영영영영, 기억 기억" 주님

다. 한가지씩 사역의 장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고치시며 맑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질배가 되어 일곱날의 빛과 같으리라"(사30:26).

이 말씀은 모든 꿈과 비전이 다 무너졌을 때, 건강도 사역도 가정도 부모도 모두 모두 저의 곁을 떠났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 말씀만은 가슴에 꺾을 간직한 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앞으로 더욱 질배의 빛을 발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엡3:20, 21).

▲이메일: 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선교 편지

이민자를 향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님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고난의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신 교회와 성도님들의 수고를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멈춤이 없이 계속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입니다.

선교사역은 참 미려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 가정의 헌신이 있으면 그 가정을 훈련시키고 파송교회와 후원자들을 모집하여 삶의 자리를 뚝뚝 옮겨 아이들을 낳는 무리 가운데 맡기고 생소한 말들을 가슴으로 받아 복음을 넣어 다시 내놓습니다. 참 어려운 방법이지요. 하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전 세계에 기독교 인구는 27억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반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현재 선교를 목적으로 다른 국가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의 숫자는 백만명 이하입니다. 그 열매가 되어도 부족하데 말입니다. 이 숫자로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씁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저희 가정은 2년 전부터 선교사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하얼빈에 있다가 출산을 위해 잠시 방문한 미국에서 벌써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은 이미 주님의 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큰 딸 예빈이의 치료를 위해 있었고, 지난 3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지로 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마음을 주신 곳은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입니다. 특히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민자가 되어 건너오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이 스페인입니다. 모로코에서 배를 타고 지브랄트 해협을 건너면 스페인의 Algeciras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현재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는 8.3%를 넘어섰고 있습니다. 15세기 종교개혁과 청교도의 신앙을 탄생시켰던 이곳이 지금은 이슬람화라는 위협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의 수보다도 무슬림의 수가 더 많아진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사역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유럽의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찾아와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수고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회와 후원자들을 찾고 있으며,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갈 수 있는 사역자도 찾고 있습니다.

지난 달 북가주 산호제에서 열린 북가주선교대회를 참석하면서 저희 가족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비록 물가가 높아 선교사들이 생활하기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행16:9)의 말씀과 같이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유럽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도와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유럽에서의 무슬림 이민자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도 복음을 전하기 힘든 북아프리카나 중동과는 달리 스스로 찾아온 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유럽의 이슬람화를 지금 막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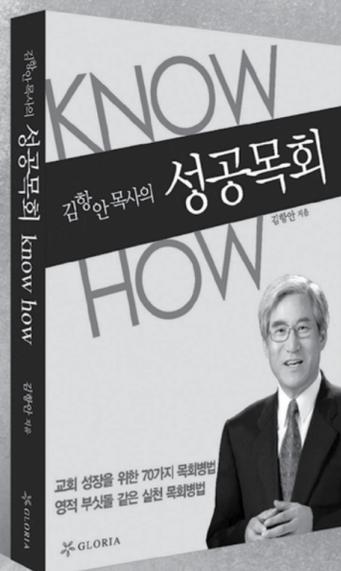
한 예로 유럽인의 출산율이 가족 당 1.3-1.6명인데 비해 무슬림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가족당 평균 8.6명입니다.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이 살아있어 세계의 신앙의 개혁을 이끌었던 곳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 당신의 나라 회복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한 가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사현, 이현진 선교사 연락처: 626-703-6584

김항안 목사가 전하는 실천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공 목회가 되게 하는 70가지의 목회방법



김항안 지음 384쪽 신국판 정가 12,000원

28년 동안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를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된 영적 부신티들과 같은 실천목회의 Know How와 Know Where가 담긴 목회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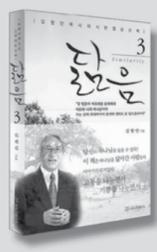
김항안 목사가 시편 150편을 새롭게 조명한 기독교 영성 안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출판부분 우수도서 선정



김항안 지음 415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김항안 지음 412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김항안 지음 415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시편 150편에 담긴 기독교영성의 맥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대비시켜 영성의 맥을 알게 해 주는 영성회복의 내비게이션!!!

김항안 목사가 새한국중앙교회에서 행한 일 년 365일 새벽기도 대표기도문



김항안 지음 390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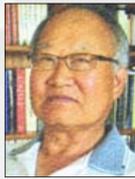
김항안 목사 철학 박사, 선교학 박사

목포 교육대학, 가톨릭대학, 중앙대학교 대학원, 장로회 신학대학원,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배례신 신학대학에서 수학했다. 강남 대학, 총회 신학, 서울 신학대 동대학원 강사, 아세아 신학대학원 교수,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글로벌리아 선교의 대표, 새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기독교 영성의 원천, 「절기 예배의 이론과 실제, 「감동적인 고난주간을 위하여, 「복음적인 성교와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능력과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성장사과 교회성장, 「대표기도문, 「감사하는 영혼의 양식 헌금기도, 「일만 번 주기도 하라, 「아이를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크리스천 사랑교육법, 「달음, 「1987-2012 복음적인 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새벽기도를 위한 365일 기도문, 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기도는 자기의 무능을 한풀이하는 "성도대회"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믿는 과정이다. 기도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

기독문학소설

《남》이라는 다른 이야기 (4)



정중해 박사 (문학인)

아내의 혼수상태가 길면 길수록 두 자녀를 거느린 무영의 가정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그의 정신적 고민은 더 심각해졌다. 무영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게 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재고해보았다. 무영은 무신론자였던 자기는 심장마비에서 구출해주고, 독실한 신자였던 자기 아내는 식물인간이 되게 한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기는 죄가 많으니까 천벌을 받아 죽어도 마땅하나, 신앙으로 사는 착한 자기 아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에게 계속 매달려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할지 의문이 생겼다. 그는 일전에 병문안하러 온 윤 목사 말대로 죽은 듯이 누워 있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내기 위해서 언젠가 다시 벌떡 일어나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무영의 아내가 코마상태로 침상에 누운 지 삼개월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새벽 무영은 양로원의 직원으로부터 환자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통고를 받고 아내 곁으로 달려갔다. 근간과 와서 무영이가 희망을 포기하고 예상하고 있었듯이 아내는 끝내 코마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임종을 맞고 있었다. 그날 아침 창문에 막 햇살이 비칠 때쯤 무영의 아내는 남편과 두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몇 번이나 큰 숨을 내쉬고는 그만 운명하고 말았다.

언젠가 오고야 말 아내의 운명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자 무영은 갑자기 짝을 잃고 홀아비가 되고 말았다는 고독감이 전신을 엄습해 옴을 느꼈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하고, 밝아오는 창문마저 어둑어둑하게 보였다. 앞으로 나 혼자서 자식 둘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담? 생각할수록 살아갈 앞날의 중압감이 짓눌려 무영은 가슴이 답답해왔다.

병상에서 오래도록 질질 끌다가 마지막 숨을 거둔 아내의 장례식은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성황리에 끝났다. 교회에서 허무영 교우의 부인이라고 하면 누군지 잘 몰라도, 양선희 집사라고 하면 모르는 교인이 없을 정도로 무영의 아내는 교회 온 신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래서 장례식은 주일 대예배 때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몰려와 조의를 표했다. 조사를 읽는 어느 친구 여 집사는 고인을 가리켜 “양 집사님은 하나님이 이 고장에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충성스럽게 다 끝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도루 돌아가셨습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윤 목사는 믿음이 약한 교인 무영이가 실의에 빠져 있을까 염려가 되어 장례식 바로 다음날 전화로 예고하고 무영의 집을 방문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없었다. 무영은 그날까지 직장을 쉬겠다고 하면서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목사가 자리에 앉자 고개를 숙이고 목도를 하자, 무영은 부엌으로 들어가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과일을 깎고, 케이크를 잘라 쟁반에 담고 있었다. 윤 목사는 그런 것 대접 받으러 오지 않았으니 제발 부엌에서 나오라고 호통을 쳤다.

조금 후 무영은 준비한 음식을 들고 왔다. 어느 집 안주인 못지않게 깔끔한 다과상을 차려놓고 목사에게 권했다.

“목사님, 어제는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온 교인들이 동원되어 장례식을 아주 잘 치르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두 훌륭하게 살고가신 고인의 덕분입니다. 사람의 진가는 죽어봐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 집사님은 어제 친구가 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로 천사였어요. 우리 교회의 노약자나 병실에서 고생한 분들 중에 아마 양 집사님의 돌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걸요.”

“그런 불우한 사람들을 돌봐주도록 그녀를 좀 더 놔두지 않고 데려가시니, 하나님도 무심해요. 왜 그런 필요한 사람은 데려가고, 저 같은 무용지물은 남겨두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무슨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하죠. 옳은 믿음을 아시죠?”

“네, 지난번에 목사님이 읊 이야기를 해주셨기에 그날 밤 읊기를 한 번 더 읽어보았습니다. 읊이 당한 시련에 비하면 내가 당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고생을 한 윤도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더군요. 막판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윤의 소유가 두 배나 불어났고, 잃었던 자식 수만큼 다시 자식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마땅히 그래야지요. 그런 불행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갑절로, 즉 두 배 많은 것으로 축복해줍니다. 그것보다 회의에 빠진 읊이 자기 지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점이 읊기에 담긴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읊과는 먼 사람입니다. 읊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읊은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경건한 생활을 한 독실한 신앙인이었던걸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던 오만한 무신론자였는데, 어쩌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을 뻔하자 비로소 아내가 믿는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은 것뿐입니다.”

“이래 믿든 저래 믿든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통해 감사할 대상인 하나님을 찾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무래도 좀 비겁한 것 같네요. 평소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헤매다가 예수를 만났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텐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 자꾸만 비겁한 생각이 듭니다.”

▲이메일: chonhae@hotmail.com (다음호에 계속)

선교지 편지

차드

‘사하라의 별빛 아래서’ 차드 소식을 전합니다.

깨어진 몬트리올 옥합

저희는 몬트리올 한인교회연합회에서 주최한 선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산다는 것이 집이 될 수 있었지만, 승화된 믿음으로 소화한다면 부담은 소멸이 되고, 소멸은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단지 불어를 쓰는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프리카 불어권을 위해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진 몬트리올 교회들의 순수함이야말로 거룩한 마음일 것입니다.

소외된 아프리카 불어권을 위한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린 몬트리올 한인교회의 헌신이 이번 대회를 향유내을 가득한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송이 꿀보다 달콤한 주님의 말씀이 더해져 대회장 내내 잔칫집 같았습니다. 그 연세에, 그렇게, 모든 연령대를 다 아우르는 흡입력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상복 목사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성없이 웃기다가 마지막에 정곡을 찌르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난타한 조윤태 목사님은 강단 위의 ‘신데렐라 맨’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고 했었지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분들에게서 저희를 토론토와 몬트리올, 워싱턴에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받은 사랑은 여기에서 나누겠습니다.

일정관리 프로그램

이번 선교대회를 기회 삼아 라디오 방송국 장비를 구입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일정관리 프로그램과 가지신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척척 모나미 FM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1년전 스티븐 잠깐 은자메나에서 만났습니다. 그 때 저희는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분은 차드의 열린 문을 찾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는 비전을 가진 한국인 선교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만나고 싶어했다고 합니다. 저런 그 때 마땅한 숙소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팀 선교회에 들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그저 놀라기만 했습니다. 이 분은 팀을 데리러 독일로 들어갔고 저희는 아이의 케어를 위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나 차드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저희는 때가 차매 허가를 받았고 이 분은 때가 되어 장비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Kurt(쿠르트)라는 독일 선교사님과 그가 이끄는 팀입니다. 이 분들은 라디오 방송국을 위한 노하우(knowhow)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라디오 방송국 설립을 도왔던 분들입니다. 차드에 온 것도 복음 라디오 방송국들을 돕고 설립하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가진 미팅을 통해 이 팀이 저희 방송국의 송신탑을 세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송신탑을 세우는 일은 만만치 않은 경비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저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임을 깨닫습니다. 내년 2013년 1월 21일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송출기와 안테나가 생길 때까지 그것들을 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타락을 했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있던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증거를 창조세계에 남기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존재가 되었지만 중생 스스로에게 자신이 잘못된 길에서 있는지 어떤지를 근심스럽게 묻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과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실 많은 일을 갖고 계십니다.”

모나미 FM과 바이나마르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실 많은 일을 은혜의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온 몸으로 느끼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와 Kurt와 만남을 주신

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만남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으로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생수를 만났던 사건은 과거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전기 시설을 갖추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앞서 왕별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순종함으로 따를 것입니다.

올학교와 교회

왈리아에 있는 올(우리)학교는 올해 380명의 학생들이 등록했습니다. 교실이 모자라 급한 대로 교실이 나눠지고 기도가 드려지는 그곳은 단지 하나의 교실이 아니라 불타는 열기나무 아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கூ나에 다녀오니 은자메나가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사리강저 지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수제민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열아홉 가정의 집이 침수되거나 파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옥수수 반 가마씩(보통가정 한 달 가량의 식량)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빛줄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사역지인 인도를 자신이 발굴하려는 영적 금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국에 있는 여러분이 빛줄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나미 FM과 학교를 통해 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1.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2. 모나미 FM방송국 건축에 필요한 재정과 송출을 위한 태양광 전기 시설이 갖춰지도록
3. 왈리아 학교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교사들이 성실히 가르치고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매일 매일 더욱 더 사랑스러워하도록)
4. 왈리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부어져 주님을 더 알고, 생활 가운데 체험의 역사가 있도록
5.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조승호 선교사 ▲이메일: pray4chad@gmail.com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টে모 모든것-



Advertisement for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showing various promotional items like mugs, pens, and bags. Text includes: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새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23)



3. 예배중심의 교육 (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지금 우리는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닌 성격들 중 하나인 "예배중심 교육"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두 번째 주제로, 예배의 교육적 역할들을 수행하는 "방법들(Methods or Pathways of Christian Education in Worship)"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에서는 예배의 주된 기독교 교육 방법들 중 마지막인, "성례(sacraments)"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신교에서 정통으로 인정된 두 종류의 성례 중 먼저는 세례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신앙행성에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며 전 예배자들을 향한 교육적 함의가 매우 강력한 것이라 설명할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식(Baptism/Confirmation)에 이어, 또 하나의 기독교 성례인 성찬식(Eucharist or Holy Communion)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리는 공동체적 경험입니다. 이는 곧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영원토록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역사를 기념하는 공동체적 의식입니다. 성찬식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다시금 다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인 정체성 확인하고 하나됨 경험하는 자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알게 해야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구속의 의미를 알고 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그 성찬식에 초대되며 이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함께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현합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예배자들에게 표현하시고자 당신께서 손수 차리신 성스러운 만찬 식탁에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주셨으며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성찬식을 다른 말로 "환영의 식탁(Welcoming Table)"이라고도 하는 것이지요).

예배자들은 이러한 성찬식 때 반복해서 가르쳐지는 말씀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만찬의 정황과 이야기들을 듣고 배우게 되며, 그 구절들에 익숙해지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타내는 구속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그 때 들려지는 예배음악을 통해, 그 선율과 그 노래 시들을 통해, 만찬의 이야기들은 더욱 생생해지고 정서적으로 깊은 연관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그 때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에 대한 묵상과 감사의 기도를 통해, 만찬의 이야기는 내면화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때 옆에서 함께 참여하는 신앙 선배들, 후배들, 그리고 동지들의 진지한 태도와 순수한 열정을 통해, 만찬의 이야기는 더욱 강화되고 역동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 됨,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참 의미를 다시금 새기고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성만찬은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 지속적인 돌보심의 은혜를 새로이 배우게 하며, 또한 이에 감격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전을 줍니다.

성만찬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에,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의 바탕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일깨우고 지속적으로 가르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의미가 매우 큼니다. 또한 그 구속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돌보시며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삶의 자리에서는 이를 이웃들에게로 확장시킬 수 있게 되기까지—초대하고 환영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도 그 교육적 의미를 새겨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성만찬에서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찬식을 통해 우리 예배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머리모양이 아닌 가슴으로 배워 인격 속에 내면화시키고 삶에서 구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성만찬의 교육적 함의들을 인지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은 집례자들의 경우 성찬식을 중심으로 준비하여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만찬시 관련 성경말씀을 다룰 때 그저 성경말씀을 낭독하는 한편일률적인 형식만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를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적 장치들—예를 들어 디테일이 살아 있는 폴 스토리텔링—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찬식에 우리 성도들이 진지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독려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는 집례자 뿐 아니라 모든 우리 사역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특히 유스 친구들과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경우엔 더욱 신경 써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에게도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진지하게 임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성만찬이란 단순히 지루한 어른들의 예배에 간혹 참석해서 조그마한 카스테라 조각과 아주 작은 잔에 담긴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그것들이 나타내는 구속의 사역과 은혜를 기념하며 이웃들에게도 이를 전하는 사명에 동참하도록 거룩한 초대를 받는 일임을 기본적인 성만찬 관련 이야기들과 함께 차근차근 교육해야 합니다(집례자들의 경우, 성만찬시 우리 자녀들이 보다 잘 이해하고 의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정확한 가르침을 주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의 교육적 노고들로 성만찬을 통한 교육이 그 진정한 의미를 발현하고 더욱 풍성해 질 수 있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연락처: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목시가 없으면 (잠29:15-27) 찬241장

목시인 계시란 하나님이 베일을 벗겨 열어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포함하는 율법, 곧 성문화된 계시가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할 일을 알게 되니까 규모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계시를 모르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첫째, 영적 어두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계시는 명료하고 총괄하며 구원의 능력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목시를 모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

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과거의 우리는 어두움이었는데 계시를 받아 응답함으로 밝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목시가 없으면 방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징계할 때도 임의로 하다가 빗나가고 개인 삶에도 임의로 판단함으로 교만에 치우쳐 육체 소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특별계시인 성경 앞에 바로 서서 성령의 밝히시는 은혜로서 계시의 조명으로 가득찬 인생을 살아갑니다.

화 선택사 (잠26:17-28) 찬337장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는 야고보의 말대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 자로 살아가야합니다. 이것은 말에 덕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덕있는 말을 할까요? 첫째,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합니다. 다똥을 간섭하거나(17) 희롱하거나(18-19)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는 모두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 온유한 말이 나옵니다(23-27). 둘째, 성령 안에서 기도생활을

힘써야합니다. 거짓말(28)과 아침의 말(28)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진실한 기도의 언어를 배워야합니다. 셋째, 덕 위주의 삶을 힘써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과 칼과 몽둥이 그리고 불이 된 것처럼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도 이웃을 고치고 치료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선교사이기 전에 선택사가 되어야하며 선택사가 되려면 언덕사가 되어야 합니다.

수 현실에 충실한 삶 (잠27:1-13) 찬383장

어떻게 신자는 미래보다 현실에 더 충실할 수 있나요?

첫째, 현재를 겸손히 살아야합니다(1-2). 안개와 같고 풀과 같은 인생은 신속히 지나갑니다. 다음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날의 괴로움을 그날로 족히 여기고 지금 있는 그 자리부터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둘째, 작은 유적욕망을 제해야합니다. 분노와 투기

는 현재의 충성을 저하시킵니다(3-4).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지혜자가 되어야합니다.

셋째, 현재의 책망을 잘 받아야합니다(5-6). 사랑의 면책과 친구의 권고를 잘 받을 줄 알아야합니다(5-6, 9).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책망을 잘 받을 때 양약이 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비전이란 명목아래 현실을 등한히 여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함을 지켜나가는 지혜자가 됩니다.

목 작은 일에 성실하자 (잠27:22-27) 찬381장

전원적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본문은 작은 일에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먼 곳에 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면류관과 재물에 마음을 두기보다 현재 자기 일과 자기 양떼와 소떼에 마음을 두고 작은 일에 성실할 때 큰 것을 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는 항상 미래와 과거에 마음을 두지만 지혜자는 철저히 현실을 살핍니다.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도 미련할 뿐입니다. 미련은 절구 속에 넣고 찼어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잠언은 땅 끝에 가있는 미련한 마음의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식구부터 성실하게 믿음으로 돌보며, 아침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생활에 성실함으로 마음의 샘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야 합니다.

금 의인의 담력 (잠28:1-18) 찬421장

의인으로 인정받아 의를 이름에 부름받은 신자는 사자같은 담력을 가져야합니다(1). 세상이 매우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지역의 부흥을 위해 맹수같은 거짓교훈과 싸웠다고 고백합니다(고전 15:32). 어떻게 담력을 가질 수 있나요? 첫째, 하나님의 보호의식에 기대어 담을 씌어줍니다. 그러나 악인은 좃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두려움이 있는 까닭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식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골리앗 앞에서의 담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

지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성령이 지배하는 임마누엘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되어집니다. 사방으로 우겨쌌을 당한 바울은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굴하지 않고 도리어 그 환경을 복된 역사로 바꾸는 담력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 나의 할 일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토 구제의 삶 (잠28:19-28) 찬410장

잠언의 가르침을 복음의 삶의 다양한 방면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합니다. 잠언의 여호와 경외신앙은 복음 안에서만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 중 이웃 구제에 관해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자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길입니다(27). 가난한 자란 영육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구제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둘째, 바른 구제

란 하나님 앞에서 하며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하도록 갚아주십니다. 공출이 심판을 이깁니다(약2:13). 셋째, 구제에 무관심한 자에게 저주가 많이 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소자를 도우라고 맡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제 목표로 움직이는 삶은 결국 자기를 관리하는 최상의 길 중 하나입니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2013년 달력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들이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일반달력/기독교달력

공감도
가격세일

- 달력/수첩 주문제작 가능
- 교회 로고와 이름 인쇄 가능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7 미가엘 반주기

뛰어난 휴대성, 활 빠르고 편리한 기능!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음질 스피커
- USB 호스트 기능
- SD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헬라성구사
에하드수정장대상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헬라문의 독특한 디자인

최저가격 보장
성구서계 최초 GD마크 획득!
한국다인진출원으로 부터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중) 지정납품업체 선정
이들이 자유로운 바벨(360도회전) 음광(171등장 1등중) 상단에서 유동체로 -성공자 시력보호

이외에도 다양한 목재성구와 크리스탈 성구가 있습니다.

LA 모든 교회를 섬기는 '오병이어선교회' 이준 목사

어두운 곳에 빛을.. 예수님 이름으로 밥상 나누기

“지금까지 이어온 것을 돌아 보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질문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요.”

LA의 모든 교회를 섬기기 위한 비전을 안고 오늘도 새벽부터 깨어 도시를 섬기고 있는 오병이어선교회의 이준 목사. 그는 하나님께서 LA와 LA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으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처음에 이 사역을 할 때 받은 오해는 또 다른 무숙자 선교라는 것이다.

“LA의 시정책은 다운타운에 퍼져 살아가고 있는 홀리스들을 특정지역으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사역을 하는 단체들로 인해 홀리스들을 한곳에 모으는 것이 어려웠던 모양이네요. 저희가 다운타운의 한 파크장에서 음식을 나눠주니까 경찰들이 저희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경찰들에게 우리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오병이어선교회 스태프들

속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준 목사는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마음도 주시고요”라고 말한다.

사역을 위해 큰 창고가 필요했는데 어느 날 다운타운에 위치한 장난감공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 주인에게 지나가는 말로 장난감비즈니스가 어려워질 거니까 업종 변경 좀 해보라는 권유를 했는데 얼마 안 돼 창고를 내놓게 됐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창고를 구입할 때 비용 등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선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낸 현금 등이 비용을 충당할 정도였고 그것은 식당을 구입할 때도 어김없이 도

인 양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은 영적인 양식도 제공하여 영육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오병이어선교회를 통해 자살의 위기까지 갔던 자, 실직 등으로 낙심해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자들이 치유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거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본 선교회의 간사로 사역을 하기도 하며, 집을 잃고 거리에 나와야 하는 위기에 처한 가정에게 오병이어선교회에서 숙소를 제공해 그들이 그 고마움을 이곳에서 자원봉사자로 봉사하며 기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

이준 목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다음스텝이 뭔지는 모르

홀리스 사역 너머 커뮤니티에 음식 나누기로 확장

것이 아닌 시 전체를 위해 사역하는 단체이며 홀리스들에게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닌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와 음식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사역을 했다고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한 번으로 그칠 줄 알았던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재할 수 없는 마음을 쏟아부어주셔서 지금은 매일 홀리스들을 비롯 커뮤니티를 위해 음식을 나누는 사역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다운타운의 스킵으로 지역인 515 Crocker St. LA에 사무실을 마련한 오병이어선교회는 창고와 식당 스태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스태프하우스, 그리고 라이선스를 박탈당해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할 수 없던 리커스토어를 인수해 도서실 및 샤워장으로 개조하는 등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네이션을 하는 독지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매우 힘이 들고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있었지만 지내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것도 하나하나 이루어져갔음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오병이어선교회는 사역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바로 스کید로 지역을 넘어 LA에 거주하는 극빈가정 중 매달 800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7-8명의 부양가족을 돌봐야 하는 자들을 위해 트레이더 조스와 팔프 등에서 질 좋은 빵과 과일 등을 매일 공급받아 나누고 있다. 이 사역은 LA지역 신학교까지 넓혀 학생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의의나무선교회 시절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성경공부 교재발간을 통해 단지 육적

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상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시는 않았지만 그래서 매일 매일 힘겹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당신만으로 충분한가를 질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 대답은 언제나 네 그렇습니다 이라고요.”

이준 목사는 오병이어사역이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갈수록 없었던 인간들을 위해 친히 오셔서 영생의 길을 찾도록 기회를 주신 것처럼 LA의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데 쓰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5breadsand2fish@gmail.com (박준호 기자)

투고시

감사의 향기로 피어오르는 계절



박용덕 목사 (남기주빛내리교회)

여행을 마치고 찾아온 쌀쌀함이 온 몸을 삭이며 세월에 힘을 잃은, 지는 낙엽 속에서도 해맑은 날개 짓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

창조주의 풍성한 섭리를 알기에 어두움이 빨리 오는 계절에도 달빛의 향기에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보이는 삶의 갈증으로 인해 잠시 망각했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해 준 오묘한 가을의 뒷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사랑으로 풍성한 거룩한 은총 하늘의 경륜으로 만물을 노크하는 신성한 사랑 우주를 뚫고 달려와 거친 십자가에 걸려 있는 고결한 가을

계절의 향기가 되어 내 가슴에 흐르고 은혜의 강물이 되어 고운 영혼에 머문다.

금빛 언어는 수고의 세월을 먹고 구슬땀이 향기로 피어오르는 가을

풍요로 오신 주님의 손길이 우주의 총만하기에 계절의 축제를 펼치며 언제나 감사의 향기가 된다.

감사의 힘, 행복의 무한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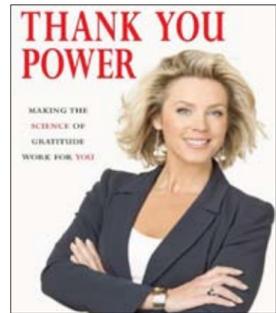
크리스천북리뷰, TV뉴스프로그램 진행자 노빌라가 밝히는 감사 비밀 소개

미국의 대표적인 심층 뉴스 TV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Inside Edition)'의 진행자로 유명한 데보라 노빌(Deborah Norville)은 두 차례의 에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금은 ABC 라디오 쇼의 사회를 맡고 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와 자신의 삶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에너지가 바로 '감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데보라는 감사의 에너지를 통해 기적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심리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게 변화하기를 원한다.

그녀가 제시하는 행복의 지름길은 바로 "감사노트"를 QT처럼 매일 기록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 일어난 일을 세 가지만 추려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 가운데 내가 감사할 일을 하나 결정해서 노트에 메모하는 것이죠. 그냥 무엇이든 나를 기분 좋게 만든 일을 적으면 돼요. 웃게 만든 것, 가슴을



푸근히 만들어준 일상의 다양한 일을 노트에 기록해 봐요. 앞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일이 무엇인지 상상해 보고 적어요."

전문가들은 감사 노트의 이점을 크게 두 가지로 꼽는다.

1. 오늘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잘된 일을 통해 자신을 격려할 수 있고, 잘못된 일을 통해 반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2. 지나간 과거('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할 걸' 등의 후회)에 대한 짐작을 버리고 현재에 대해 긍정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데보라는 '감사 노트'를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유익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으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강해졌다.
- 예전보다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 다양한 것에 흥미가 생겼으며,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 주위 사람으로부터 유머 감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 결단력이 강해졌고, 체계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대하고 친절함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웠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 가족관계가 돈독해졌다.

기도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응답을 **확신**하라 기도범위를 **확대**하라

12월 미주갈멜산기도원정기 기도성회

| 일시 2012년 12월 13일(목, 저녁) ~ 20일(목, 저녁)(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818) 306-4912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대표(신학생 훈련단체) KWMA 운영이사/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L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한국의 안양에 위치한 갈멜산금식기도원에서 2012년 2월 19일에 설립한 기도원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자 세워졌습니다. 코리아타운 내 카타리나와 W 8th 코너에 위치하여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기도회와 매일 조성근 담임목사가 직접 성회를 인도하는 매일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교회중심과 말씀중심의 기도성회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회복의 감격,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몇 년의 신앙이 앞당겨지고 직분자들은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을 지니게 되며 사역자들은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야기의 첫문장이 됩니다. 지금도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